2011.04.20 No.106
gonggam.korea.kr
Weekly
공감
지구를 건강하게
녹색생활로 가는 길 P23~39
프랑스로부터 145년 만의 귀환… 반갑다! 외규장각 의궤 P6~7
이종화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G20 성과 노하우 가르쳐줍니다" P10~11

뽑는데 1초, 자라는데 20년

1톤의 종이컵을 만드려면 20년생 나무 20그루를 베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구에서는 1초마다 축구장 만한 면적의 숲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편리함 때문에 무심코 한 번 쓰고 버린 종이컵,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습관

하지원
(사)에코맘코리아 대표

올 것 같지 않던 꽃 피는 봄이 어느새 성큼 찾아왔지만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낀다. 왜 매년 맞이하는 봄이 이렇게 다른 걸까? 지구에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또한 그 이상 증세가 산업혁명기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소모한 에너지와 쓰레기 등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들 때문이라는 것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결국 그 원인을 일으키는 당사자는 바로 나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무서운 방심을 이제는 진정 버려야 할 때인 것이다.

'나'의 행동은 나에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의 행동이 누적되어 지금에 다다른 것처럼 우리의 행동은 우리 아이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 문제는 지구가 버틸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가 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다. 일본의 지진보다 더 무서운…. 그래서 마음이 바빠진다.

우리나라는 무려 에너지의 97퍼센트를 수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지내고, 여름에는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켠 채 스웨터를 걸치고 일하고, 여전히 일회용컵에 커피를 마신다. 에너지를 만드는 자원은 고갈되고 있고, 사용하는 대가로 어김없이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이런 우리에게 언제나 사용가능한 청정에너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언제든 청정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방법은 바로 '녹색생활'이다. 에너지 절약만으로 탄소배출량을 58퍼센트까지 줄일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지구를 지키는 '인간 발전소'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습관'이다. 우리 모두의 행동이 모여야만 우리 아이의 밝은 미래를 열고 지구를 살릴 수 있다. 지금 '나'부터 시작하자.

우리가 그 청정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바로 '녹색생활'이다. 에너지 절약은 탄소배출량의 58퍼센트까지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이다. 이로 인해 에너지 수입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더불어 이산화탄소 배출도 적어지므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책이다.

더 좋은 것은 우리 모두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으므로 우리 모두는 지구를 지키는 '인간 발전소'가 될 수 있다.

에너지 절약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자가용보다는 버스나 지하철 이용하기, 물 아껴 쓰기, 일회용품 안 쓰기, 냉난방 적정하게 하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음식물을 안 남기는 것도 기후변화 시대의 기본 생활방식이다.

문제는 '습관'이다. 머리와 행동이 따로 노는 것은 습관이 되지 않아서이다. 이제는 우리의 생활 속에 '즐거운 습관'이 자리 잡아야 한다. 365일 매일매일 녹색생활과 함께할 때 우리는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속가능한 내일을 영위할 수 있다.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듯이 우리 모두의 행동이 모여야만 우리 아이의 밝은 미래가 열리고 지구를 살릴 수 있다. 즐거운 습관! '지금'부터 '나'부터 시작하자.

Contents

NO.106 2011.04.20 통권 207호

일러스트 · 홍종모

24

기획특집

녹색생활 나부터 실천!

지구가 아프다 합니다.
지구가 아프니 봄이 봄 같지 않고
비 올 곳에 눈이 오는 변덕쟁이가 됩니다.
하나뿐인 지구가 덜 아프도록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는 생활습관이 녹색생활입니다.

표지 이야기 4월 15일 국내 최대 도로 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코리아 2011'의 참가선수들이 벚꽃 핀 구미~거창 구간을 질주하고 있다. 사진 · 연합

위클리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1.04.20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정병국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타라티피에스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06

46

52

| 중점기획 | 과학강국 코리아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4월 21일(목)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호를 읽고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가수 인순이의 장애인을 위한 자선공연이 구로구 개봉동 남현교회에서 열렸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저 또한 마치 공연에 참석이라도 한 듯 가수 인순이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화려한 댄스에 매혹되었습니다. 기사를 읽고 나니 떨어진 자신감과 쌓인 짜증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사회에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용기와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명선 (인천시 서구 석남1동)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날이 오길!

"'23세 나! 인도 뭄바이서 세상을 품다' 기사에서 주인공의 사연을 읽으며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고 남을 돕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자신만의 꿈을 키워 가는 주인공이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길 바랍니다. 또 주인공에게 영향을 받은 G20세대들이 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장희지 (대구시 북구 고성동)

문학 한류의 기틀 마련

"신경숙 작가의 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세계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기사를 잘 봤습니다. 드라마, 영화, 대중가요, 음식문화를 넘어 이제 문학에서도 한류 기틀을 마련한 우리 문학이 일취월장하길 바랍니다."

이덕희 (경북청송군 진보면)

스포츠스타가 진정한 영웅!

"지난호 스포츠 기사 '스포츠 영웅은 늘 그립다'와 소통칼럼 '영화 속 영웅이야기'가 와닿았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가진 영웅과 스포츠스타는 늘 똑같은 일상을 사는 서민들에게 부러운 대상이자 대리만족의 즐거움 그 자체라고 할까요. 스포츠스타는 현실에 존재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 그들이 금메달을 따면 내가 딴 것처럼 기쁩니다. 국민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주는 그들이 진짜 영웅들입니다."

이기백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봄은 희망(希望)이다

봄비가 대지를 촉촉이 적시고 난 뒤, 새싹들이 옹알거리며 앞다투어 올라오고 꽃들이 활짝 피어 벌과 나비를 유혹한다. 지난 겨울이 유독 추웠기에 새 봄이 더 살갑고 정겨운지도 모르겠다. 핼쑥했던 겨울산도 어느새 녹음으로 생기를 찾아가는 봄은 새로운 희망이다.

청보리밭을 따라 노래하는 종달새의 목소리도 청아하고, 활기를 되찾은 전원은 분주하기만 하다. 늘 어김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질서 앞에 숙연해진다.

자연에 합(合)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다. 푸르른 녹음과 건강한 자연 생태계가 공생하는 세상에는 소모적으로 전쟁이나 종교적인 갈등, 인종차별, 빈부의 심각한 불균형이 없는 글로벌 세상이다.

누구나 소중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타고난 인간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봄날이 되길 소망한다.

최광성 (충북 청원군 남이면)

이 기사, 아쉬워요

"농민 입장 더 들어 봤으면"

'농협법 개정'에 대한 기획특집 기사 잘 읽었습니다. 우루과이 협상 당시부터 제기된 지 17년 만에 여야 만장일치로 개정이 합의되었다는 소식에 흐뭇했습니다. 합의 주역인 국회의원 기사도 좋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와 관련된 농민 입장이 너무 적게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현주 (주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평범한 G20세대 이야기도 다뤄졌으면"

'G20세대가 G20세대에게' 코너를 몇주간 봐왔습니다. 세계를 향한 젊은이들의 도전이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몇개 호에서 다루었듯이 하버드대, 서울대 등 평범하지 않은 학력의 소지자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시선을 낮추어 공감할 수 있는 대상들을 찾아서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영주(주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알립니다

폐휴대폰으로 사랑을 나누세요

환경부는 '2011년 폐휴대폰 범국민 공동수거 캠페인'을 실시한다. 폐휴대폰은 1대당 약 3천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매년 2천만 대씩 버려지는 폐휴대폰을 활용하면 연간 약 6백억원의 경제이익을 누릴 수 있다. 수거된 폐휴대폰은 재사용하거나 폐금속 등을 회수할 예정이며 매각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으로 기탁된다.

수거 기간 | 7월 31일까지
기부 방법 | 폐휴대폰을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제조사 A/S센터나 이마트, 지자체 주민지원센터, 초 · 중등학교를 통해 기부
지원 혜택 | 기부자에게는 기념품, 포인트 및 경품추첨권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02-2110-6953 www.me.go.kr

아름다운 우리 마을, 사진으로 담아주세요

행정안전부는 '내가 찾은 아름다운 우리 마을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다정히 지나가는 둑길의 모습, 친구들과 놀던 작은 공터, 갈대밭이 멋진 샛강의 모습 등 나만이 알고 있는 우리 마을의 모습을 사진 속에 담으면 된다. 주제는 '사람과 소통하는 우리 마을', '샛강이 어우러진 우리 마을' 두 가지다.

접수 기간 | 5월 8일까지
접수 방법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녹색공모전 사이트에서 접수
결과 발표 | 5월 24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재
지원 혜택 | 시상 외 소정의 상금 수여
녹색공모전 ☎ 070-7098-3872 our-town.accentive.co.kr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뽑아주세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인기투표가 한창(11월 10일까지)인 가운데 '제주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전화 투표 | 001-1588-7715, 영어 안내 음성 후 '삑' 소리가 나오면 7715(제주선정코드)를 입력한다.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면 종료. 전화료 약 1백40원.

제주-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www.jejun7w.com

공감퍼즐

			1		2
	3				
4					
				5	
	6	7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4월 26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페달을 밟으면 사람과 자연이 건강해지죠. "제3회 대한민국 OOO축전이 지난 16일 경북 상주에서 열렸죠."
3. 딸이 낳은 딸?
4. 새로운 규칙이나 규정. 새로이 하는 일. OO 채용.
5. 산이나 들에 나무나 화초를 심어 푸르게 하는 것. OO 사업.
6. 사람마다 각기 다름. "사람마다 성격과 행동이 OOOO."

세 로

1. 아들과 딸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큰 바위로 석상이나 무덤(고인돌) 등의 거석 기념물을 만들던 선사 시대의 문화.
3. 1782년 2월 정조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하기 위해 강화도에 설치한 도서관. 이곳에 보관했던 도서 일부가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해군에 약탈당한 지 145년 만에 우리나라에 돌아왔죠.
5. OO성장. 어느덧 환경과 건강을 상징하는 색이 됐죠.
7.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죠.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것 종주국으로 국제공인을 받았답니다.

〈Weekly 공감〉 104호(4월 6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송금 **3** 지독 **5** 거시기 **6** 도다리 **9** 방사능
세로 **1** 송아지 **2** 먹을거리 **4** 독도 **7** 다락방 **8** 가능

〈Weekly 공감〉 103호 '공감 퍼즐' 당첨자
박기풍 · 광주시 서구 유촌동
박형호 · 인천시 연수구 연수2동
성상병 · 부산시 남구 감만2동
정상현 ·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조은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145년 만의 귀환… 반갑다! 외규장각 의궤

프랑스 소장 2백97권 중 1차분 75권…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옮겨져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대에 약탈당한 조선왕실 의궤(儀軌) 등 외규장각 도서가 1백45년 만에 돌아왔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해 온 외규장각 도서 2백97권 가운데 1차분 의궤 75권이 지난 4월 14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도착한 외규장각 도서는 통관절차를 거친 뒤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졌다.

"각하,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서적들로 가득 찬 도서실(외규장각)에서 공들여 포장한 3백40여 권을 수집했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프랑스로 발송하겠습니다."

"통역이 없어서 감히 확언할 수 없습니다만 이 책들이 조선의 역사, 문학, 전설에 관해 많이 밝혀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각하는 틀림없이 국립도서관에 전달할 만한 유익한 것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1866년 11월 17일 프랑스 함대를 이끌고 강화도를 점령한 구스타프 로즈 제독은 프랑스 해군부 장관에게 이 같은 편지를 보냈다.

그는 또 편지에서 "강화에 도착하자마자 위원회를 조직하고 역사적 견지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물건들을 수색하는 일을 맡겼다"며 "이 위원회가 제출한 조서를 각하에게 보내드린다"고 썼다.

외침에도 끄떡없이 왕실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1782년 정조(正祖)가 강화도에 지은 외규장각은 84년 만인 1866년 프랑스군에 유린당했다. 프랑스군은 왕실 관련 귀중품과 책 6천여 권 중 3백40책의 도서와 한·중·일 지도, 천체도, 대리석판, 갑옷과 투구 등을 가져갔고, 나머지는 모두 불태웠다.

프랑스 군대는 왜 책, 의궤를 집중적으로 가져갔을까.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은 "의궤 대다수는 어람용(御覽用)이어서 표지와 종이질, 장정이 훌륭해 한문은 몰라도 그려진 그림을 보고 가치를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동양 고문서 수집붐이 의궤 약탈 배경"

그러면 프랑스 군대가 의궤를 약탈한 배경은 '우연한 발견'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김문식 단국대 교수는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갈 때 군대 안에 문화재를 구별하는 팀을 따로 운영했을 정도"라며 "프랑스군은 이런 차원에서 외규장각 자료를 가져갔을 것"이라고 했다.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사회에 불고 있던 동양 고(古)문서 수집붐이 그 배경으로 떠오른다. 민병훈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장은 "프랑스는 18세기 말 이래 서구의 동양학을 선도,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전성기를 맞았다" "당시 프랑스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동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 해군이 약탈해 간 외규장각 도서 2백97책 가운데 1차분 75책(유일본 8책)이 1백45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다. 나머지 의궤들도 5월 27일까지 3차례에 걸쳐 돌아오며, 이 의궤들은 7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개된다. 사진은 영조와 정순왕후의 혼인을 기록한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 하권의 반차도 일부.

프랑스 드골공항을 출발했던 외규장각 도서 최초 수송분이 4월 14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무진동차량으로 옮겨졌다.

양 문서를 적극 수집했고, 중국의 신해혁명 전후 사대부가 몰락하며 서적들이 시장에 나오자 학자들이 베이징으로 가서 방대한 양의 전적을 사들였을 정도"라고 했다.

1908년 프랑스 동양학자 폴 펠리오가 중국 둔황 막고굴에서 '왕오천축국전' 등 동양 고문서들을 무더기로 발견해 프랑스로 가져간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145년 만의 역사적 귀환'이지만 환영 행사는 없었다. 지난 4월 14일 오후 1시50분 인천공항 화물청사. 외규장각 도서 75책을 담은 5개의 포장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통관 수속을 마친 상자들은 곧바로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옮겨졌다. G

글 · 허윤희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

조선왕실의궤란?

조선시대에 왕실의 결혼, 장례, 각종 잔치 등 왕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생하게 글과 컬러 그림으로 기록한 책이다. 왕이 열람하는 어람용과 사고(史庫) 보관용으로 제작하는 분상용(分上用) 등 2종류가 있다. 이번에 돌아오는 의궤는 대부분 어람용이다.

지난 4월 14일 도쿄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취수구 부근에서 12일 채취한 바닷물을 조사한 결과 방사성 요오드131이 cc(시시)당 1백Bq(베크렐)로 법정 기준치의 2천5백 배에 이르렀다고 한다. 사진은 공중에서 찍은 후쿠시마 발전소 모습

日식품 수입 때 '방사능 안전' 증명 요구

식약청, 후쿠시마 원전 인근 13개 지역 생산물 대상…사실상 수입금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최악의 수준인 7등급으로 인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 13개 지역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 5월 1일부터 '방사선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명시한 일본 정부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4월 14일 도쿄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취수구 부근에서 12일 채취한 바닷물을 조사한 결과 방사성 요오드131이 cc(시시)당 1백Bq(베크렐)로 법정 기준치의 2천5백 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 4월 2일 기준치의 최고 1천만 배였던 검출량은 10일 5천 배, 11일 3천5백 배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방사성 물질이 이미 1백50킬로미터까지 확산된 데 이어 동쪽으로 5백 킬로미터 지점까지 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후쿠시마 원전 방류구 부근의 방사능 측정치를 근거로 한 추정치다. 문부과학성은 5월 1일쯤에는 방사성 물질이 해류를 따라 퍼지면서 농도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후생노동성의 수산물 조사에서는 원전에서 35킬로미터 떨어진 후쿠시마 현 이와키 시 앞바다에서 채취한 까나리에서 식품위생법상 기준치의 25배에 이르는 방사성 세슘과 기준치의 6배에 이르는 방사성 요오드가 각각 검출됐다.

사고 원자로 온도 다시 상승…복구작업 난항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근 지하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 역시 최근 수십 배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여기에 원자로의 온도가 다시 상승하는 등 원전 복구작업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지난 4월 14일 "원전의 지하수를 조사한 결과 지하수에 포함된 방사성 요오드나 세슘 농도가 최근 일

주일 사이에 수배~수십 배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보안원은 "3호기 원자로의 온도가 섭씨 1백70도에서 지난 4월 14일 섭씨 2백50도로 올라갔다"면서 "당장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복구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지난 4월 14일 "일본 수도 도쿄(東京)가 대지진 피해를 보거나 테러를 당하는 등의 유사시에 대비해 부(副)수도를 건설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위기관리도시 후보지로는 오사카 국제공항(이타미공항) 일대와 아이치(愛知) 현의 지구박람회기념공원 일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위기관리도시의 면적은 5백 헥타르, 택지는 2백60헥타르, 거주인구는 5만명, 취업인구는 20만명 정도를 상정하고 있다. 위기관리도시 추진 의원연맹에는 2백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식약청, 영·유아 식품 요오드 안전관리 기준 신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등급을 최고 수준인 7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각국이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사고등급 격상이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 속에 프랑스 러시아 등 원전 선진국들은 자국 원전산업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본은 방사성 물질 누출량 등 '정황 증거'로 볼 때 7등급 상향 조정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체르노빌과 같은 최악 등급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 등급 조정을 거부하다 결국 뒷북을 쳤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최악의 수준인 7등급으로 인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 13개 지역에서 생산된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 5월 1일부터 '방사선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명시한 일본 정부의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4주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입금지조치로 해석된다.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등 이미 수입 잠정 중단 조치를 한 5개 현과 미야기, 야마가타, 니가타, 나가노, 사이타마, 가나가와, 시즈오카, 도쿄도 등 8개 도·현 등에서 수입되는 식품이 증명서 제출 대상이다. 또한 영·유아(0~6세) 식품에 대해서는 요오드 안전관리 기준을 1킬로그램당 1백Bq(베크렐)로 신설했다.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원·정수 51개소(1차 8개소, 2차 43개소)에 대하여 방사성 물질 전수조사를 했으나 검출되지 않았고 서울, 울산, 인천, 대구, 남원, 성남, 강릉 등에서도 수질분석을 했는데 방사성 물질은 나오지 않았다. G 글·서일호 기자

'차단기 교체'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초읽기

배출된 증기엔 방사능 물질 없어

전기계통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설비용량 58만7천 킬로와트급, 가압경수로형)가 손상된 차단기를 교체하고 4월 15일 현재 재가동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는 차단기 제어케이블과 손상된 계측기를 교체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고리 1호기의 재가동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 고장은 발전에 필요한 각종 펌프(냉각재펌프, 급수펌프 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차단기의 내부 연결단자가 과열로 손상이 생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고 안전 차원에서 터빈과 발전기, 원자로가 자동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이번에 고장난 차단기는 2007년 8월 고리 1호기의 계획예방정비 때 교체된 부품으로, 노후 원전이어서 고장난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의 승인이 나서 재가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명연장 논란이 일고 있는 고리원전 1호기는 지난 4월 12일 전원 공급계통 차단기의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됐다. 발전소 출력운전에 필요한 각종 펌프의 전원을 공급하는 차단기에서 과전류가 흘러 차단기가 타버렸고, 그 영향으로 터빈과 발전기, 원자로가 자동 정지된 것이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의 터빈홀에서 배출된 증기는 원전이 자동 정지될 경우 원자로의 열을 식혀주기 위해 증기 발생기에서 생성된 증기를 대기로 방출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방사성 물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4월 15일 "고리 1호기 원전 사고는 안전계통과 관련 없는 경미한 사고"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지경위원회에 참석해서 "고리 1호기 원전은 핵 발전과 관련된 안전계통과 비안전 계통이 있다"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핵발전소 안전성과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조선DB

전기계통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고리원전 1호기가 손상된 차단기를 교체하고 4월 15일 현재 재가동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종화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G20 성과 ‘코리아 프리미엄’ 계속 살려야죠”

지난해 11월 개최된 서울 G20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맞대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공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됐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합의 성과를 올 11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칸 G20 정상회의’까지 이끌어 갈 한국 G20 셰르파가 이종화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이다.

이경호 기자

한국을 대표하는 G20셰르파이기도 한 이종화 국제경제보좌관은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이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계기로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이 형성된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가 G20·세계경제 체제에서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단단한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화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4월 14일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 보좌관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이나 국제 관계에 비춰 볼 때 우리가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얻은 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G20 정상회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고려대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1994년부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현재 휴직 중), 국제통화기구(IMF) 이코노미스트, 세계은행(WB) 자문위원,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자문위원, 아시아개발은행(ADB) 지역경제협력국장,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을 맡아 온 경제전문가로 지난 2월부터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이란 중책을 수행 중이다.

국제경제보좌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주 업무는 국제경제보좌관으로서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을 보좌하는 동시에 G20 회의에서 정상의 대리인인 ‘G20 셰르파(Sherpa)’로서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전까지 ADB에서 제가 했던 역할과 비슷합니다. ADB에서 글로벌 경제에서의 아시아 위상 제고와 역할 확대에 노력해 왔다면 지금은 한국의 위상 제고와 역할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셈입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차기 칸 G20 정상회의 개최에 어떠한 기여를 하게 되는지요.

“금년 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도 글로벌 불균형 대응, 개발,

국제통화체제 개혁 등 상당 부분이 서울 G20 정상회의 후속 과제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개발' 등의 의제를 주도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배우려 하고, 많은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해 한국이 기업인들의 의견을 G20 프로세스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한 비즈니스 서밋(B20)과 비회원국에게 G20 논의 현황을 설명하고 이들의 의견을 G20 논의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아웃리치(out-reach)' 활동 경험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의 중요한 국제경제 문제에 대응하여 G20가 최상위 경제포럼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랑스와 방문·전화·전자메일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직위원회 형태의 TF팀을 만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의장국일 때에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구성돼 G20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올해에는 각 부처가 분야별로 여러 장관급, 실무급회의에 참여해 칸 정상회의 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실무조정회의도 구성했습니다. 청와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들이 협력해 다음 G20 정상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전 미·중 간 환율전쟁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주도한 대외불균형 완화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합의함으로써 환율정책에 대한 공조 방향에 합의했는데 이후 진전 상황을 전해 주십시오.

"서울 G20 정상회의는 환율문제를 직접 다루기보다 경상수지 적자 또는 흑자 등 대외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협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지난 2월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대외불균형을 평가하는 대내·외 지표에 합의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불균형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이를 기초로 한 불균형 국가들에 대한 정책조정 등입니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4월 14,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도 논의됐는지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던 워싱턴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의 안정성 구축·견실한 성장을 위한 장단기 정책과제들이 논의됐습니다. 대외불균형 완화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평가는 이번 회의에서도 주된 논의사항이었습니다. 그외 다른 중요 사안들도 많았습니다. 자본이동의 불안전성이나 글로벌 유동성 관리문제를 다루는 국제통화체제 개혁, 유가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 변동성도 회원국들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또한, G20의 '최상위 경제포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중동지역 불안정, 일본 지진과 원전사태 등 최근의 국제경제 현안도 다룰 것입니다."

"11월 프랑스 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상당 부분이 서울 G20 정상회의의 후속 과제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한국 G20 셰르파로서 프랑스와 방문·전화·전자메일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G20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들에게도 중요한 다른 의제들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도록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3월 말 프랑스에서 G20 고위급 개발실무그룹회의가 열렸습니다. 개발 의제 논의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서울 G20 정상회의의 큰 성과는 우리가 주도한 개발의제입니다. 한국은 G20 고위급 개발실무그룹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서울 개발컨센서스'와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이행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9개 세부 분야 관련 행동계획에 대한 합의'라는 중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가운데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개발경험 공유 3개의 세부 분야 이행을 주도하는 공동조정국으로 금년 칸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칸 G20 정상회의를 위해 지난 1월 첫 G20 셰르파 회의가 열렸고 4월 28, 29일 두번째 셰르파 회의가 개최돼 보좌관님도 참석하십니다. 셰르파 회의에서는 어떠한 논의가 이뤄집니까.

"1차 셰르파 회의에서는 개발 의제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협의했으며, 칸 G20 정상회의에서도 개발 의제를 중요하게 다루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다른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인 '글로벌 금융 안전망' 이슈도 국제통화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논의 중이며, 국제통화기금(IMF)과 지역 금융안전망과의 협력 등 추가 진전을 위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주도한 의제도 중요하지만 G20를 통해 글로벌 불균형, 원자재 가격변동성 등 국제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국은 G20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들에게도 중요한 다른 의제들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도록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G

글·박경아 기자

Tour de Korea
START
Tour de Korea 2011

자전거 물결… 대한민국이 달린다

전국 일주 '투르 드 코리아' 열띤 레이스… 자전거 축전도

네 바퀴로 지구를 혹사시켰다면, 이제는 두 바퀴로 지구를 지킬 차례다. 지구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자전거 타기다. 때마침 국내 최대 자전거 축제인 '제3회 자전거 축전'과 함께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도로 사이클 대회 '투르 드 코리아(Tour de Korea, 이하 TDK) 2011'이 동시에 열리고 있다. 전국은 지금 자전거 열풍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16일 경북 상주에서 개막한 '제3회 자전거 축전'은 '자전거로 열어가는 녹색 대한민국'이라는 행사 주제에 걸맞게 '시·도 자전거 축전'으로 확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 축전은 2012년 4월 열릴 '제4회 자전거 축전'을 '세계자전거대회'로 격상·발전시키기 위해 붐업(Boom-up)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16개 시·도가 함께해 범국민적인 축제로 펼치고 있다.

'자전거로 열어가는 살기 좋고, 건강하고, 편리한 사회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2012년까지 자전거 보급률을 16.6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교통수송분담률을 1.2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는 지난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지정하고 자전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자전거 축전은 '자전거의 날' 지정 후 해당일 전후로 개최되는 자전거 축제라 의미가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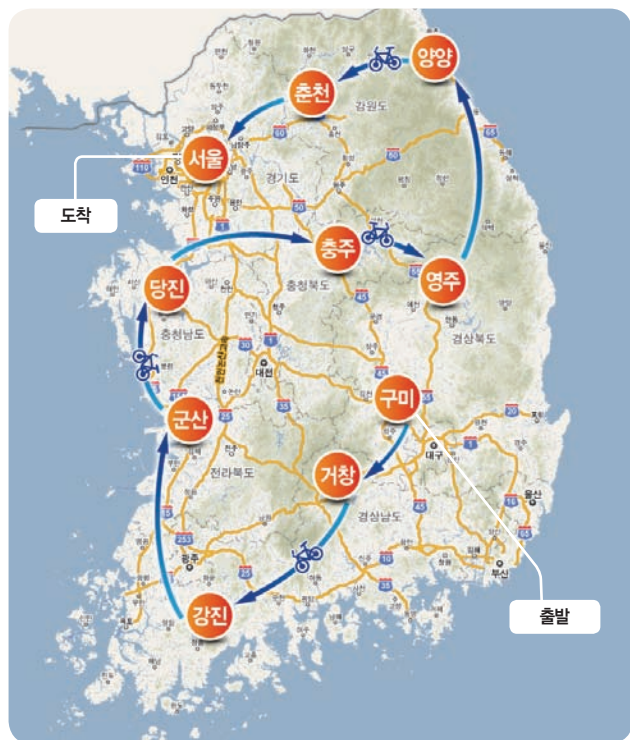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4월 16일부터 24일까지를 '지구를 위한 일주일'이라는 주제로 '제1회 녹색생활 실천주간'으로 정했다. 이를 기념해 서울시청 광장 일대에서 자전거 발전체험 등 'CO_2 절감'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및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스포츠, 문화, 환경운동이 어우러진 역대 최대 자전거 축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년 세계자전거대회로 발전 위한 날갯짓

자전거 축전 기간 동안 16개 시·도 거점행사장에서는 '시·도 자전거 축전'이 이어진다. 자전거 퍼레이드, 자전거 기증행사, 지역별 특화 자전거 활성화 이벤트 등 시도별 지역 행사는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지구의 날 행사'와 관련한 환경운동 행사를 비롯해 '자전거의 날' 관련 기념행사, TDK 연계 거점행사 등 다양하게 진행된다.

경기도 수원시(수원의제21추진협의회)의 경우 23일 오전 10시부터 만석공원에서 '제41주년 지구의 날 기념 수원 자전거·걷기 대행진 행사'를 연다. 오전 11시 만석공원에서 시작해 장안문~팔달문~세류사거리~수원역~팔달문~만석공원으로 이어지는 자전거 대행진 등을 펼칠 예정이다.

그 밖의 시·도 역시 22일 '자전거의 날'을 전후로 국가자전거도로와 연계해 '도심형 거점행사'를 지자체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6개 광역시, 경기도, 제주도 내 국가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와 관련해 상징성이 있는 곳에서 열린다.

해외 15개국 17개 팀과 국내 4

투르 드 코리아 2011 코스

구분	엘리트	스페셜
4.14(목)	전야제 (구미)	
4.15(금)	구미 → 거창	
4.16(토)	거창 → 강진	곡성 → 강진
4.17(일)	강진 → 군산	고창 → 군산
4.18(월)	군산 → 당진	부여 → 당진
4.19(화)	당진 → 충주	천안 → 충주
4.20(수)	충주 → 영주	
4.21(목)	휴식	
4.22(금)	태백 → 양양	평창 → 양양
4.23(토)	양양 → 춘천	양구 → 춘천
4.24(일)	서울 (광화문 → 올림픽공원)	

팀 등 총 21개 팀이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TDK의 연계 거점행사는 지난 15일 개막도시인 구미를 출발해 거창~강진~군산~당진~충주~영주~양양~춘천을 거쳐 24일 서울에 도착하는 코스 연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계 시도에선 시상식과 자전거 퍼레이드, 기증행사 등 지자체별로 자전거 축전을 펼친다.

'제3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과 '투르 드 코리아 2011' 행사는 4월 24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과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폐막식은 종합시상식을 비롯해 자전거 동력체험 등 시민 참여 행사와 축하 공연이 이어진다.

자전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자전거 축전'은 자전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로 제1회 축전의 경우 축전 기간(2009년 4월 25일~5월 3일)에 자전거판매량은 23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전문가들은 "올해는 '자전거의 날'과 '지구의 날' 등이 겹쳐 자전거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자전거는 건강에 좋고, 환경과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녹색 교통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녹색 자전거 환경을 만드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G

글 · 박근희 기자

시도별 자전거 축전 일정

시도별	일시	장소	행사내용
서울	4월 24일(일) 오전 9시30분	광화문광장 올림픽공원	TDK 결승전, 시상식, 기타 이벤트
대구	4월 24일(일) 오전 10시	중앙사거리	'지구의 날' 행사와 연계, 자전거 퍼레이드, 기증행사, 아트바이크 체험 등
인천	4월 23일(토) 오전 10시	문학구장 앞	자전거 퍼레이드, 자전거 기증, 자전거 전시회(도시보급형) 등
광주	4월 23일(토) 오후 1시	평화의 공원	'지구의 날' 행사와 연계, 자전거 기증식, 퍼레이드, 안전보험 가입
대전	4월 22일(금) 오전 11시	중구 목척교	'자전거의 날' 기념식, 기증행사, 자전거타기 실천 결의문 낭독, 퍼레이드
울산	4월 23일(토) 오전 9시	태화강 둔치	기증행사, 자전거 퍼레이드, 결의대회, 수리센터 운영, 나눔 장터 등
경기 (수원시)	4월 23일(토) 오전 10시	만석공원	'지구의 날' 행사와 연계, 자전거 기증식 및 퍼레이드, 자전거 묘기
강원 (양양군)	4월 22일(금) 오후 2시30분	양양군청	TDK 시상식, 자전거 퍼레이드, 기증행사, 자전거 묘기 시연
충북 (충주시)	4월 19일(화) 오후 1시	보라매공원	TDK 시상식, 자전거 퍼레이드, 기증행사, 자전거생활 실천결의
충남 (당진군)	4월 18일(월) 오전 10시30분	문예의 전당	TDK 시상식, 축하공연, 자전거 퍼레이드, 기증행사
제주 (제주시)	4월 23일(토) 오전 11시30분	산지천 일원	지구의 날' 행사와 연계, 자전거 기증식, 퍼레이드, 자전거경기 한마당

상주 자전거박물관

두 바퀴 자전거 100년 역사를 한자리에서 본다

'제3회 자전거 축전' 개막식 개최지인 '자전거의 고장' 상주에서는 자전거와 관련해 '자전거박물관' '자전거 역사 1백년 상주 홍보관'을 개방한다.

그 중 상주시 도남동에 있는 자전거박물관은 자전거를 테마로 한 세계 유일의 박물관이다. 2010년 10월 개관했다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010년 10월 27일 확장 이전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박물관은 상주시가 사업비 97억원을 들여 상주시내 용마로에 대지 2만8천여 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은 곳으로 자전거역사관, 홍보전시관, 건강자전거 찾기, 행복자전거 찾기, 체험실 등 상설전시관과 고전 자전거 및 이색 자전거 등이 전시돼 있는 기획전시실이 있다. 박물관에서는 우리나라 최초, 세계 최초 자전거 모형, 이색 자전거 등 60여 대를 한눈에 관람할 수 있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먼저 세계 최초의 자전거 '드라이지네'가 눈에 띈다. 독일의 드라이스가 1813년에 목마에 바퀴를 붙여 이륜차로 만든 것이다. 1876년 미국 독립 1백주년 기념 박람회에 소개돼 큰 인기를 끈 '오디너리'도 구경해 볼 수 있다. 박물관 지하 1층에는 자전거 1백여 대를 보관하는 자전거 대여소가 마련돼 있다. 연중 무휴로 운영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문의 · 054-537-6173

고려인삼, You are the Winner!

국제식품규격위, 우리가 제안한 농약 기준 수용… 인삼 종주국 지위 인정

한국이 제안한 인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우리나라가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지위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는 지난 4월 4~9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한 농약잔류분과위원회에서 한국이 제의한 살충제 '디페노코나졸' 잔류 허용기준을 국제표준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코덱스는 1994년 출범한 유엔 산하기관(회원국 184개국). 지난 2001년에는 일본이 내세운 기무치 대신 김치를 공식용어로 인정, 한국을 김치 종주국으로 공인했던 국제기구다. 당시 김치의 코덱스 규격이 마련되면서 우리나라가 김치에 대한 세계적 리더십을 발휘한 것처럼 이번 결정으로 인삼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회의는 지린(吉林)성 주변을 내세우며 자국이 인삼 종주국이라고 주장해 온 중국에서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은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동안 인삼 잔류농약에 대한 코덱스 기준이 없는 것은 인삼을 미국 등 해외에 수출하는 데도 큰 장애가 됐다. 디페노코나졸은 인삼 재배 때 흔히 사용하는 농약인데 이에 대한 코덱스 기준이 없고, 수입국에서도 기준이 없으면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인) '불검출'이 기준이 된다. 이는 인삼 수출을 방해하는 요인이었다.

코덱스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인삼 수입 국가가 별도의 자국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한, 인삼의 디페노코나졸 잔류량은 우리나라 허용기준(0.5ppm 이하)이 세계 표준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박선희 식품기준과장은 "우리나라의 수출장벽이 해소돼 지난해 1천2백억원 수준인 인삼 수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간 인삼 명칭 때문에도 오해가 많았다. '고려인삼(파낙스 진셍)'은 국제적으로는 '진셍(ginseng)'이라고 불린다. 이 영문명을 '인삼의 일본어 발음'으로 오인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많다. 인삼의 일본 이름은 '고라이 닌징'이다. 고라이는 고려, 닌징은 당근 혹은 인삼을 뜻한다.

중국에선 인삼을 베이징 발음으로 '련션'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인삼은 '상삼(祥蔘)'에서 연유했고, 점차 발음이 변해 쉰셍→진셍으로 바뀐 것이라고 중국 당국은 주장한다. 또 〈급취장(전한)〉과 〈상한론〉, 〈신농본초경〉 등 중국의 고문헌에 인삼이 기술돼 있다는 것도 내세운다.

중국 기원설은 허점이 많다. 특히 중국 문헌에 인삼 자생지로 기술된 중국 산시성 타이항 산맥의 상당지역은 기후·토양으로 보아 인삼이 자생하기에 부적합한 곳이다.

우리 선조는 예부터 인삼을 '삼(蔘)'이라고 불렀다. 한반도에서 오래전부터 인삼이 발견되고 이용됐지만 세종대왕 이전엔 문자가 없어 삼을 우리 식으로 표기할 수 없었다. 아쉽게도 인삼의 재배가 시작된 시기를 정확하게 밝힌 국내 문헌은 없다. 인삼의 재배 기원에 대해 설이 분분한 것은 이래서다.

우리 고유품종 '유자'도 제 이름 되찾아

'고려인삼(진셍)'의 학명 파낙스 진셍(Panax ginseng)은 19세기 러시아의 식물학자 메이어 박사가 붙였다. Panax는 고대 그리스어의 'pan(모든 것)'과 'axos(약)'의 합성어로 만병통치약을 의미한다. 진셍은 고려인삼만을 뜻한다. 미국삼·캐나다삼·일본삼을 진셍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고려인삼과 다른 삼은 마늘과 양파만큼이나 다른 식물이다.

한편 그동안 우리나라 고유품종임에도 국제사회에서 일본어인 '유주(Yuzu)'로 명칭되던 '유자(柚子·Yuja)'가 이번에 열린 코덱스 농약잔류분과위원회에서 제 이름을 되찾았다.

지난해 코덱스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유자차(Yujacha)에 대한 규격안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유자에 대한 명칭을 일본식 명칭 유주에서 한국식 유자로 수정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회의기간 중 우리 측 명칭 변경 제안을 일본 대표단에 알렸으며, 일본도 명칭 변경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G

글·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약전문기자)

세계 7대 강국 '위대한 탄생' 보인다

연구개발에 GDP 5퍼센트 투입·7대 중점분야 육성 등 577전략 '순항'

한국은 과학기술 개발에 가장 열성적인 국가 중 하나다. 성장전략도 과학기술에서 찾고 있다. 신산업의 기술개발을 주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 계획도 수립했고 투자규모도 확충했다. 추격형 R&D에서 벗어나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2012년 7대 과학기술강국 실현.'

2012년 한국 과학의 목표는 세계 7위다. 2012년 국가 총연구개발투자(GERD)를 국내총생산(GDP)의 5퍼센트까지 확대하고 7대 중점분야를 집중 육성해 세계 7위의 과학강국이 되겠다는 청사진이다. 정부는 2008년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77전략'이 그것이다.

정부의 목표는 착실히 실현되고 있다는 평이다. 투자 규모는 증가 추세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증가율은 연평균 11.1퍼센트로 6.7퍼센트인 정부 총 예산증가율보다 2배 가까이 높다. 올해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8.6퍼센트 증액된 14조9천억원이다.

한국의 R&D 예산은 세계적으로도 많은 편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국가총연구개발투자는 4백53억 달러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였다. GERD는 연평균 11.8퍼센트 불어나 GDP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연구원 수는 연평균 6.58퍼센트씩 늘어나 2퍼센트인 선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R&D 예산 빠르게 증가해 세계 4위

연구 성과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 논문인용색인(SCI) 논문은 2007년 2만7천2백84편에서 2009년 3만8천6백13편으로 41.5퍼센트나 증가했고 국제특허출원은 7천65건에서 8천48건으로 13.9퍼센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과학 인프라 경쟁력 순위는 세계 7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다.

올해도 '577전략'은 이어진다. 특히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일자

조선DB

정부는 2012년까지 세계 7대 과학기술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로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사진은 울산과학기술대의 실험 수업 장면.

리 창출 ▲창조형 기초 원천 연구 강화 ▲녹색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술 지원 ▲미래 국격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등 4개 분야에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과학 기술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인재지만 현재 상황은 썩 좋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과학 인재 수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도 걱정스럽다. IMD에 따르면 한국의 두뇌유출지수는 3.69로 조사 대상 58개국 중 42위에 그친다. 두뇌유출지수는 10에 가까울수록 유출되는 인재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1995년에는 7.53으로 4위를 차지했었다. 반면 해외 우수두뇌 유치는 여전히 미흡하다.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귀국하는 인재는 1998년 44.1퍼센트에서 2007년 26.3퍼센트로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는 과학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과학인력양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안에 '제2차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창의적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대학 교육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1천2백40억원을 투자하는 등 다양한 특성화, 내실화 정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에 기반한 일자리도 창출한다. 고용창출 효과와 전후방 산업 연계 효과가 큰 부품 소재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중소 중견 기업의 기술 역량을 높여 관련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또 지식 서비스 R&D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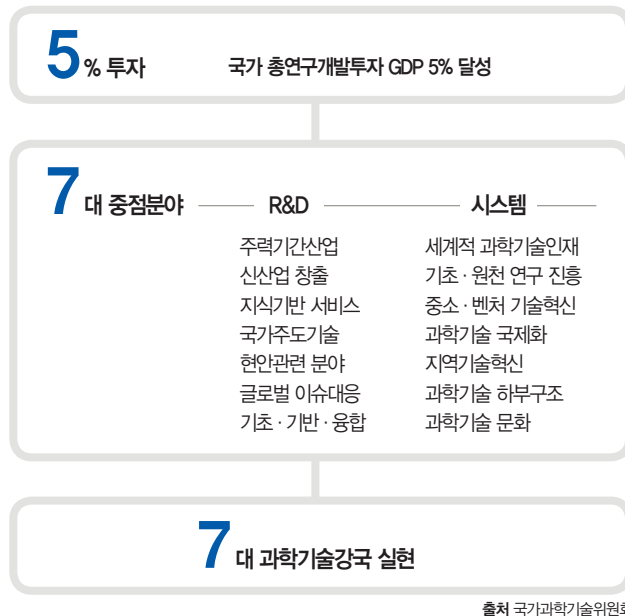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기초·원천 연구 부족 현상도 개선해 나간다. 한국은 종전까지 경제 성장을 위해 추격형 R&D에 치중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연구 산출물인 논문과 특허 등으로 판단하는 연구의 생산성도 높지 않다. SCI 논문 수는 세계 12위지만 5년 주기 평균 피인용 횟수는 30위 정도에 머문다.

기초 연구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특히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를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기초 연구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초 연구 투자와 창의적 연구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원천 연구 투자 규모는 지난해 전체 R&D 투자의 43.5퍼센트에서 46.7퍼센트로 늘린다. 내년에는 50퍼센트까지 투자 규모를 증액한다. 창의적 연구성과를 위한 개인 소규모 기초 연구 지원도 지난해 6천5백억원에서 7천5백억원으로 늘렸다.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시들어 간다는 우려가 많다. 1996~2000년 5.4퍼센트이던 것이 2006~2009년엔 3.0퍼센트로 내려앉았다. 이를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출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돌파하기 위한 최선책은 새로운 성장산업을 발굴, 육성하는 것이다. 정부가 녹색기술과 신성장 동력 기반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올해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난해 2조2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원자력 기술의 고도화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스마트그리드, LED, 그린 소프트웨어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녹색기술 및 신산업 창출 기술 지원

미래성장을 위한 신산업의 기술 개발에도 지원을 넓힌다. 지능형로봇, 신소재·나노융합, 콘텐츠산업, 바이오·의료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최근 들어 크게 높아진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에도 역량을 모아 나간다.

미래 세계를 주도하기 위한 대형 공공국책사업을 확대한다. 위성발사체와 위성 등 우주강국 진입에 필요한 기술, 국제핵융합실험로 등 미래 유망에너지 확보를 위한 기술, 해양과 극지 연구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제 협력도 넓히기로 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연구 인력의 국제 교류와 다자협력 활동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G

글·변형주 기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10년 뒤 주목받을 유망기술을 발표했다.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 기술도 그 중 하나로 선정됐다.

조선DB

전기차 급속충전 · 저가 LED 램프 · 원격 건강진단 등

친환경 · 정보격차 해소 기술이 뜬다

신종전염병, 정보격차, 고령화 등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10년 뒤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얼마나 풀 수 있을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10년 뒤 10대 유망기술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인간의 삶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달라졌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에도 인터넷이 상용화됐을 때도 그랬다. 10년 후에는 어떤 기술이 탄생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하 과학기술평가원)은 우리 사회와 삶의 새롭게 등장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10대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했다.

편리한 녹색기술 '생활 속으로'

'서울 시내 이산화탄소 함유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전기차와 이산화탄소 흡수 장치가 널리 보급된 덕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부산까지 왕복할 수 있는 데다 충전시간도 짧아 전기차를 찾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경쟁이 뜨겁다. 차세대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전기차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는 '충전'에 있다. 더 빠르게 충전하고 더 많이 달릴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주유시간에 근접할 정도로 충전시간이 짧아지고 한 번 충전으로 장거리를 운행할 수 있어야 기름차와 경쟁할 수 있다. 전기차의 급속 충전기술과 전기차의 배터리로 사용될 리튬에어전지가 10년 뒤 유망기술로 꼽힌 이유다.

현재 전기차 급속 충전 기술은 30분 내외로 단축하는데 이르렀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과학기술평가원은 현재의 주유시간에 필적할 정도로 충전 시간을 줄이는 기술이 전기차 보급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튬에어전지는 차세대 2차전지로 전망됐다. 현재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등에 많이 사용되는 2차전지인 리튬이온전지보다 용량이 10배 이상 크다는 장점이 있다.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10대 미래유망기술

기술	내용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술	전기차 충전 시간, 기존 주유 시간과 동등하게 단축
양자암호기술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통신 기술
2달러짜리 LED 램프	전력 소비량이 현격히 감소하는 저가 LED 조명
원터치 건강 진단 서비스	개인의 건강을 원격 진단하는 서비스
1백 달러짜리 구부러지는 태블릿 PC	충분한 성능과 휴대성 갖춘 저가형 휴대 컴퓨터
CO_2 흡수·저장 소재	CO_2 감축에 효과적인 신 나노재료
전염성 병원체 검진 로봇시스템	검체 처리에서 병원체 탐지까지 수행하는 무인진단기술
리튬에어전지	배터리 용량을 종래보다 10배 이상 확대
광범위 작용 항미생물제제	슈퍼박테리아 등 신종 전염병에 신속 대응
현장 진단 유전자 증폭기술	유전자 기술 활용해 질병 감염 현장 진단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현재의 리튬이온전지는 리튬이 공기와 만나기 전인 이온 상태를 이용한다. 이에 비해 리튬에어전지는 음극재로 사용되는 리튬을 공기로 산화시킨다. 직접 공기와 반응하면 축전량이 크게 늘어나는 원리를 활용한 기술이다.

전기차의 보급과 함께 '이산화탄소 흡수 및 저장 장치(CCS)'가 보급되면서 공기는 더욱 맑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CCS는 가장 현실적인 '저탄소 저감 기술' 중 하나로 꼽힌다. 쓰레기를 치우듯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모아 한 곳에 모아두는 기술이다. 정부는 지난해 CCS 시범 플랜트를 세계 최초로 건설하는 등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ED램프의 보급도 '저탄소 경제'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LED 램프는 현재의 전등에 비해 전력소비량과 발열량이 현저히 적다. 열이 나지 않아 여름철 전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을 식히기 위해 사용되는 전력도 아낄 수 있다. 문제는 가격이다. 일반 백열등보다 수십배나 비싸다. 과학기술평가원은 10년 뒤 2달러짜리 LED 램프 기술을 10대 유망기술 중 하나로 선정한 배경이다.

값싸고 안전한 통신기기 등장

'정보 격차가 크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플렉시블(flexible) 태블릿 PC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달러 미만의 저가이지만 성능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양자암호기술 덕에 해킹의 위험도 없습니다. 안전, 가격, 성능 3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종이처럼 접거나 돌돌 말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플렉시블 태블릿 PC가 10년 후에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1백 달러 수준의 저렴하면서도 고성능의 제품으로 휴대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의 보급으로 정보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과학기술평가원은 기대했다.

이동단말기의 약점 중 하나는 해킹의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걱정이 크게 덜 수 있다. 해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양자암호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양자 암호는 빛의 입자인 광자(빛의 양자)를 사용해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를 해킹하기 위해 접근하면 양자의 모양이 바뀌어 해킹을 차단한다.

양자암호기술이 상용화되려면 통신 거리를 늘려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5킬로미터까지 보내는 기술을 개발한 상태고 일본은 지난해 이 기술을 이용해 영상회의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신종전염병 위험 대폭 감소

'신종 박테리아로 추정되는 전염성 병원체가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염성 병원체를 조사를 위한 로봇을 현장에 보내고 인근 지역엔 지역 주민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진단 인력들을 파견했습니다. 광범위 항미생물제제 확보를 위한 준비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건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10년 후에는 로봇, IT 등이 의약과 결합하면서 더욱 편리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진단이 일반화된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가정용 진단 모듈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수집한 후 이 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의사에게 보내면 의사는 이에 따라 처방을 내린다. 언제 어디서나 의료진과 연결되어 있는 'U(유비쿼터스) 헬스케어'가 보편화된다.

신종 전염병에 대한 기술적 대응도 강력해진다. 전염성 병원체가 발견되면 로봇을 보내 현장 검사를 한다. 사람이 직접 조사하는 데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주민들의 감염 여부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유전자 증폭기술인 PCR를 이용해 현장에서 유전자를 실시간으로 조사할 수 있다. 지난해 신종플루 사건 때 관심을 받기 시작한 기술이다. 10년 후에는 호흡기 질환, 성병, 약제내성 검사, 암 등 진단할 수 있는 질환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신종 전염병을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도 한층 발전된다. 과학기술평가원은 '광범위 작용 항미생물제제'가 10년 후 중요한 기술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용하는 미생물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새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G

글·변형주 기자

알면 안심, 모르면 근심… 아하! 방사선

지구가 탄생할 때부터 하늘에도 땅에도 음식물에도 방사선이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병원에서 엑스선을 찍을 때도 방사선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방사선은 항상 함께하고 있답니다. 방사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경방사능이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흔히 방사능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방사능이란 좁은 의미로는 방사성물질의 원자핵이 단위시간당 붕괴되는 수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방사선이란 방사성물질이 붕괴될 때 방출되는 선으로 쉽게 말하면, 백열전구를 방사성물질(방사능)이라고 생각하면, 전구에서 나오는 빛을 방사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환경 속에 존재하는 방사능이 환경방사능입니다. 암석이나 흙, 공기 중에 있는 먼지, 물속이나 채소, 과일, 생선이나 육류 등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 속에서 발견됩니다. 또 TV나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제품, 공항에서의 보안검색장치, 엑스선 장치, 암 치료 장치,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방출되는 방사선도 환경방사능에 포함됩니다.

일러스트·홍종모

자연 상태에서도 방사선은 있습니다

하늘과 땅, 음식물 등 자연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자연방사선이라 하고, CT 촬영, 엑스선 검사 등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인공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활주변으로부터 1년에 약 2.4밀리시버트(mSv)의 자연방사선을, 병원에서 흉부 엑스선을 촬영할 때는 약 0.1밀리시버트의 인공방사선을 받게 됩니다. 이 정도 양은 인체에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1밀리시버트는 1시버트의 1천분의 1이며, '시버트'는 방사선 방호 목적으로 사용하는 선량 당량의 단위입니다. 선량 당량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선량이며 방사선의 종류가 달라도 선량 당량이 같으면 그 영향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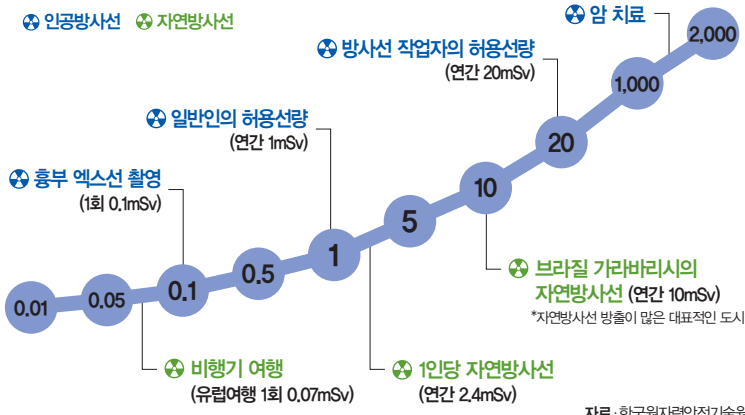
정부는 자연방사선이 아닌 인공방사선을 사용할 때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일반인이 연간 1밀리시버트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방사선은 물질을 뚫고 나가거나 반사하고 이온화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엑스선 촬영, 암 치료는 방사선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한 것입니다.

방사선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줄어들고, 거리가 멀어지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방사선은 빛과 같은 에너지의 흐름이므로 오염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요오드 성분 광고 식품, 치료효과 얻기 어렵습니다

갑상선에는 요오드를 주요 성분으로 하는 갑상선호르몬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고농도의 방사능요오드에 노출되면 요오드의 20~30퍼센트 정도가 갑상선에 축적되게 되는데, 방사선요오드가 들어가기 직전이나 직후 안정요오드제를 복용하면 방사성요오드의 갑상선 축적을 저해하거나 희석해 갑상선에의 영향을 낮추도록 합니다.

방사선은 우리 생활 속에 존재한다. 사진은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 장면.

따라서 고농도 방사능요오드에 노출되지 않는데 예비로 먹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또한 노출됐을 때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요오드의 농도로는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시마에 들어 있는 요오드 역시 매우 적은 양이어서 약의 효능은 적습니다. 방사능 노출이 1백 밀리시버트보다 높은 수치일 경우에만 정부의 안내에 따라 요오드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전에 예방적으로 미리 요오드를 과다 섭취 또는 복용할 경우 오히려 요오드 과잉에 의한 알레르기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갑상선비대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65일 실시간 환경방사선을 감시합니다

정부는 평상시에도 전국 71곳의 방사선 측정기로 우리나라 전역의 환경방사능 정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비상사태 발생 시 조기에 탐지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안전규제 활동입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자신이 사는 지역 주변의 방사선량을 교육과학기술부(www.mest.go.kr)와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iernet.kins.re.kr)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토에서 조금이라도 방사선량이 증가하게 되면 먼지, 빗물, 바닷물, 흙에 방사선을 내는 물질이 있는지 더 자세히 측정을 합니다. 자동감시망에서 이상 발생 경보가 일어나고, 방사선량률 증가가 확인되면 경보 설정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령합니다.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은 안전합니다

지난 4월 7, 8일 내린 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내 농산물의 방사능 오염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가 전국 34개 시·군에서 재배되는 시금치, 상추 등 10개 채소류 40건을 수거해 지난 4월 8일~1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 농산물 중 37건에서는 방사성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3건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으나 기준치 이내의 미량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산 상추, 통영산 시금치, 남해산 시금치에서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되었지만, 이는 가장 많이 검출된 시금치 기준으로 매일 50그램씩 약 60년을 섭취했을 경우(1단 기준 3백 그램 시금치를 3천6백50단 섭취한 양) 엑스선 1회 촬영 시 노출되는 방사선량과 유사할 정도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기존 모니터링체계(연간 2백 건 검사)에서 정기검사체계(매주 10건 검사)로 검사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내산 축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중인 동해안·제주도 지역 등에서 생산되는 원유 검사에서도 4월 12일 현재 검사가 완료된 10건(제주) 전부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대상(기존 10개 품목)에 연근해산 및 원양산 수산물 6개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 / 농림수산식품부 (web.maf.go.kr/safty)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nsic.kins.re.kr) /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 (iernet.kins.re.kr)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대표전화110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 110은 정부대표전화입니다.
- 317개 모든 행정기관의 업무를 상담안내해 드립니다.
- 이제 110 하나의 번호만 기억하시면, 정부 업무에 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110 상담내용

▶일반 민원 상담

전국 관공서 안내,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새 주소, 여권, 자동차 등록, 운전면허, 학교행정, 교육, 병무, 보훈, 건설공사, 주택건축, 인 · 허가 절차, 민원 처리 기관 안내, 정부통계 등 모든 행정 사무

▶세금, 공공요금 상담

양도소득세, 상속세, 관세, 취득세, 주민세, 유가환급금, 근로장려금, 벌금, 과태료, 수도요금, 연말정산 등

▶사회안전망 상담

일자리 안내, 기초생활수급, 사회복지, 서민금융 지원, 소상공인 지원, 노인복지, 영유아 보육비 지원, 채무 상담 등

▶생계침해 신고 상담

불법 사금융, 임금체불, 과다소개료, 불법 직업소개, 취업 사기, 금품 착취, 불공정 계약, 성 폭력 피해, 환경 피해, 보이스피싱, 교통불편 신고 등

110 서비스 안내

▶전화민원 "Happy Call" 서비스

기관에 연결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은 개선해 드립니다.

▶수화상담 서비스

씨토크 영상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번 없이 110번으로 전화하시면, 전문 수화상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외국어상담 서비스

영어, 일어, 베트남어 등 20여 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110 서비스

휴대전화로 110 모바일 웹페이지(m.110.go.kr)에 접속하시면 문자상담 예약상담이 가능합니다

▶예약상담 서비스

110홈페이지(www.110.go.kr)에서 원하는 상담 시간과 내용을 예약하시면, 예약하신 시간에 상담사가 전화를 드려 상담해 드립니다.

▶예약민원 "Call Back" 서비스

심야 및 공휴일, 기관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문의하신 경우 근무일에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려 민원 상담을 해 드립니다.

▶문자상담 서비스

민원인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문의 내용을 보내면 상담사가 문자메세지로 신속하게 문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110 이용안내

상담 시간 – 평일 : 오전 8시 ~ 밤 9시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기 획 특 집

저탄소 녹색생활 지구를 부탁해!

지구가 아프다 합니다. 지구가 아프니 봄이 봄 같지 않고
비 올 곳에 눈이 오는 변덕쟁이가 됩니다.
하나뿐인 지구가 덜 아프도록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는 생활습관이 녹색생활입니다.

자, 시작하세요.
당신의 녹색생활에 지구가 웃습니다.

일러스트 · 홍종모

녹색생활은 지구온난화를 막고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현명한 선택이다. 사진은 지난해 광주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열린 '지구의 날' 행사.

나부터 녹색 실천…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지구 살리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 4월 22일까지 '다양한 이벤트'

한때 '녹색생활은 일부 환경운동가들의 몫'이라고 생각되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녹색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이 먼 미래의 일 혹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일, 나의 일이기 때문이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이해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이 펼쳐진다.

요즘의 '잇백(It bag)'은 '에코 백(Eco bag)'이다. 잇백이란 그 계절에 유행하는 '바로 그 가방'이란 뜻. 한때 유행하던 '고소영 백(지방시 판도라)', '송혜교 백(셀린느 송혜교 포 셀린느)', '김남주 백(지미추 스카이)' 등 명품가방들을 제치고 '아중백(홈플러스)', '효리백(롯데마트)', '이보영백(신세계)'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나눠준 면 가방이 대세다.

지난 2007년 영국 디자이너 아냐 힌드마치가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자'는 메시지를 담아 'I am not a plastic(나는 플라스틱이 아닙니다)'이라는 문구가 적힌 흰색 캔버스천 가방을 선보인 이후 세계적 스타나 유명인사들이 사치스런 가방 대신 흰색 캔버스천으로 된 에코 백을 들면서 친환경적인 에코 백 열풍이 시작됐다.

물론 에코 백이 완벽하게 장바구니를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에코 백은 녹색생활을 우리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 일조했다.

친환경 에코 백 인기, 명품가방 제쳐

세계적 스타와 유명인사들이 대중 앞에서 에코 백을 들고, 기업들이 면 가방을 나눠 주며 '그린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구의 환경문제가 절박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00년대 이후 (6대 도시 평균기온)이 섭씨 1.7

도 상승했다. 이러한 기온 상승 가운데 도시화 효과로 인한 상승 비율이 20~30퍼센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안 수위도 심상치 않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우리나라의 동해안과 서해안은 연간 0.1~0.2센티미터, 제주도 주변(남해안)은 연간 0.4~0.6센티미터, 외해 부근은 연간 0.5~0.7센티미터 상승하고 있다. 특히 제주 연안은 연간 0.5센티미터씩 지난 43년간(1964~2006년) 21.9센티미터 상승했다.

국립기상연구소는 지난 2006년 발표한 '우리나라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을 통해 21세기 말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섭씨 4도 상승하고, 강수량은 17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온이 평균 섭씨 4도 상승하게 되면 산지를 제외한 남한지역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로 변화한다. 섭씨 6도가 상승할 경우 많은 산림과 생물종의 멸종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주목받는 것이 온실가스다. 온실가스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6가지 기체로, 이 가운데 이산화탄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온실가스 43퍼센트 비산업 부문서 나와

최근 2, 3년새 불고 있는 에코 백 열풍에서도 볼 수 있듯 가정과 기업에서 '녹색생활'에 주목하는 것은 가정, 상업, 교통 등 비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43퍼센트가 비산업 부문에서 배출된다. 비산업 부문은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규제가 아닌 '자발적 녹색생활'이 중요해진 것이다.

녹색성장위원회 정의에 따르면 녹색생활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현명하고 친환경적으로 이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적게 하고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생활습관(life style)'을 말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러한 녹색생활에 좀 더 많은 이들의 참가를 위해 올해 '지구의 날(4월 22일)'을 계기로 4월 16~22일을 '제1회 녹색생활 실천주간'으로 선포하고 '지구를 위한 일주일' 행사를 갖는다.

녹색성장위원회의 김경욱 녹색생활지속발전팀장은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많이 높아졌으나 아직 에너지 절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된 체감적 변화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녹색생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녹색생활 실천주간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실천주간 선포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나부터 실천(Me First)'하는 녹색생활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생활 실천주간' 홈페이지(www.greenweek.kr)를 운영해 일주일 동안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절감량에 따라 전 국민이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캠페인을 벌인 뒤 4월 22일 지구의 날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은 녹색생활 실천량을 지구에 기부하는 퍼포먼스를 벌인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 행사도 열린다. 녹색생활 실천주간 동안 개최되는 '여성단체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여성가족부)', '전국 한등 끄기(환경부, 지자체)' 등이 그것이다. '지구를 위한 일주일'은 아직 남아 있다. 바로 지금 당신에게도 참여할 기회가 있다. 물론 지구를 위한 사랑 실천이 일주일에 끝날 일은 아니지만 말이다. G

글 · 박경아 기자

녹색성장위원회 www.greengrowth.go.kr
'녹색생활 실천주간' 홈페이지 www.greenweek.kr

녹색생활 실천주간 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내용
국회 기후변화 포럼	4월 20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 논의
기후변화적응 심포지움	4월 20일 오후 3시	국회 귀빈식당	기후변화 시나리오 정보 등 소개
녹색나눔 오픈마켓	4월 21일 오전 11시~ 오후 5시	청계천 광통교	이동형매장으로 중고재활용품 판매
여성단체 에너지 절약운동 선포식	4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청계광장	'1가정 탄소 1톤 줄이기'와 '탄소캐시백 · 탄소 포인트제 이용생활화' 촉구
에코맘 리포터 발대식	4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올레 KT홀	에코맘 리포터 약 150명 녹색생활 전도 활동 개시
언플러그드 콘서트	4월 22일 오후 7시30분	서울광장	녹색전력주간에 모인 전기 사용 콘서트
전국 한등 끄기	4월 22일 오후 8시~ 8시10분	전국	주요 상징물과 대형건물, 일반가정까지 온 국민 10분간 동시 조명 끄기 행사
녹색소비자연합 녹색소비 캠페인	4월 22일 오전 10시	서울광장	녹색제품 홍보, 어린이 사생대회
그린스포츠! 녹색응원문화 정책 캠페인	4월 24일 오후 2시30분	춘천 종합운동장	프로축구 경기 중 관객과 함께 녹색 응원 문화 캠페인 전개
하이서울 자전거 대행진	4월 24일 오전 8시	서울 광화문~ 올림픽공원	자전거 동호회와 시민이 참가하는 자전거 퍼레이드
지구의 날 기념 차 없는 거리 대구시민 생명 대축제	4월 24일 오전 0시~ 자정	대구 반월당~ 중앙로, 대구전역	지구의 날 기념식과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몸 튼튼·지갑 든든·환경 탄탄 "너무 좋아요"

고유가 시대에 '자출족'이 늘고 있다. 자전거 출퇴근을 통해 교통비 절감과 함께 건강도 관리하고, 환경보호에도 동참하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얻고 있는 셈이다. 자출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자전거 보유 인구가 5백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선DB

자전거를 타서 비만과 고콜레스테롤 증상 등을 두 달 만에 잡은 김종래(오른쪽 맨앞)씨가 서울 한강시민공원에서 자전거 동호회원들과 라이딩을 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제로', 환경보호 효과는 훨씬 높아

자전거 수송분담률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머물러

자전거를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는 단순 교통비나 건강관리 비용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다.

세종대학교 환경에너지융합학과 전의찬 교수는 "자전거는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온실가스(탄소) 배출뿐 아니라 도로·주차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인구 1천명을 수송한다고 가정했을 때 승용차는 6백70대, 버스는 40대, 자전거는 1천 대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에 따른 필요 도로 면적은 자전거(1천3백 제곱미터)가 승용차(1만3천 제곱미터)나 버스(1천5백 제곱미터)에 비해 최고 10배가량 적다.

또 한 사람이 1킬로미터를 이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은 승용차가 1천1백50킬로칼로리, 버스는 5백70킬로칼로리이지만 자전거는 22킬로칼로리에 불과하다.

전의찬 교수는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80퍼센트 이상이 에너지 사용에서 발생한다.

이 가운데 34퍼센트는 산업부문에서, 20퍼센트는 수송부문(서울은 40퍼센트)에서, 13퍼센트는 가정이나 상업 부문에서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 교수는 "문제는 국내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라며 "레저로서뿐만 아니라 출퇴근, 쇼핑할 때에도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27퍼센트)나 덴마크(18퍼센트)보다는 못하지만, 가까운 일본만 해도 자전거 수송분담률은 14퍼센트에 이른다.

2개월 만에 체중 12킬로그램 감량
체지방률·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에 가까워져

PR대행사 임원인 김종래(43·서울 중랑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전거를 타서 체중 12킬로그램을 줄였다. 작년 10월 5일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키 1백78센티미터, 몸무게 95킬로그램으로 체질량지수(BMI)가 30인 비만이었다. 총 콜레스테롤은 2백22㎎/dL(정상 상한선은 2백㎎/dL)로 심혈관질환 위험이 컸고, 체지방률은 23.8퍼센트였다(남성 정상 범위 13~18퍼센트).

조선DB

미니벨로 등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자출족'이 크게 늘고 있다.

따로 운동할 틈을 내기 어려웠던 김씨는 다음날부터 집에서 중구 장충동 회사까지 자전거 출퇴근을 시작했다.

시간이 촉박할 때는 10킬로미터쯤 되는 차도를 따라 40분 정도 주행했고, 여유 있을 때는 중랑천 시민공원 자전거길을 통해 15킬로미터 정도를 1시간여 달렸다.

직장 근처 헬스클럽에 등록해서는 사물함에 양복을 걸어 두고, 자전거복을 입고 출근해 샤워 후 갈아입었다.

김씨는 "반드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해야 한다고 집착하지는 않았다"며 "1주일에 2~3일은 회식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지 못했는데, 그럴 때는 주말에 한강시민공원을 따라 자전거로 하루 30킬로미터 정도를 달렸다"고 말했다.

김씨는 2개월 만에 체중이 83킬로그램으로 감소했다. 지난 2월 받은 건강검진에서 체중은 83킬로그램으로 유지됐고, BMI는 26.2로 낮아졌다. 체지방률은 19.5퍼센트로 정상치에 가까워졌고, 총 콜레스테롤은 1백75㎎/dL로 정상을 회복했다.

김씨가 달린 총 주행거리는 4천 킬로미터가 넘었다. 김씨는 "3월부터 자전거 타는 횟수를 늘려 현재는 체중을 70킬로그램대 후반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1인당 1년이면 1백만원 이상 절약
"시간이 지날수록 쌈짓돈이 뭉칫돈 되네요"

직장인 이지언(30·서울 중구)씨는 2008년부터 주 2~3회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다. 이씨가 절약하는 교통비는 1주일 평균 6천원(왕복기준). 여기에 한 달 6만원 하는 피트니스센터 사용료는 자전거 이용 후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주말에도 가끔씩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씨는 이래저래 한 달이면 10만원 정도를 절약한다. 만 3년 동안 자전거만을 이용한 '경제적 효과'를 계산해 보니, 최소 3백50만원에 달했다.

이씨는 "사실 처음부터 돈을 아끼려고 자전거를 탄 것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쌈짓돈이 뭉칫돈 됐다"면서 "지금 타고 있는 자전거의 초기 투자 비용(미니벨로 25만원)을 제외해도 꽤 많이 남는 장사를 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효율성에 비해 남아 있는 과제도 많아
자전거도로 부족해 사고위험 높은 게 흠

자전거의 이같이 높은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자출족'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게 중론이다. 먼저 국내의 자전거도로는 끊겨 있는 구간이 많다. 따라서 자출족들이 출퇴근할 때면 일반 도로나 인도를 오가야 한다. 서울의 경우 워낙 자동차가 많아 호흡기 질환까지 생각한다면 자출족의 건강이 마냥 '안녕'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이지언씨는 "어쩌다 자동차를 뒤따라가게 될 경우 매연이 코를 찌르는가 하면, 눈이 충혈되기도 한다"면서 "자동차와 충돌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대비책들이 마련돼야 녹색생활을 지향하는 자출족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박노훈 (헬스조선 기자)

배우 박진희, 트위터로 '에코 스타' 인증샷

머그잔·텀블러 사용은 기본…개그우먼 송은이는 수저통 들고 다녀 유명

유명인들이 앞장 서서 '환경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배우 박진희·최강희, 방송인 박찬민·배칠수·박준형, 가수 김범수 등이 대표적이다. 일상 속에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행동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린 셀러브리티'들이 전하는 '에코 라이프'를 소개한다.

"저는 요즘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요. 자전거를 타면 제 몸도 건강해지고 지구까지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배우 박진희는 늘 환경을 생각하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스타로 유명하다. 일회용 컵 대신 머그잔, 재활용 컵을 사용하는 건 기본이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 미니홈피 등을 통해 팬들에게도 환경보호 방법을 알려 진정한 '에코 스타'임을 증명했다.

박진희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 대신 물잔을 받아 든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했다. 박진희는 '잠시 쉬는 시간에 스태프들이랑 커피 마시러 왔는데 아이스 음료는 일회용 컵으로만 준다 해서 물잔에 달라 했어요. 근데 양이 적다며 두 잔 주신 넉넉한 인심! 두 잔째! 잘 먹겠습니다'라는 물잔 사용 인증샷을 올렸다.

최강희, 일회용품 쓰지 않는 연예인으로 꼽혀

그는 천연세제 만들기 동영상도 공개했다. 박진희는 동영상에 직접 출연해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었다(오른쪽 QR코드 참조). 또 박진희는 '가끔 어깨가 처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일들이 많습니다. 님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함께 해줄 거죠? 환경은 빠르게 오염되고 우리 실천은 느립니다. 가속도를 님과 함께 내려고요'라며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까지 부탁했다.

배우 박진희는 환경 지킴이 스타로 유명하다. 일회용 컵 대신 물잔을 사용하는 트위터사진을 통해 팬들의 환경보호 참여를 부탁했다(오른쪽 사진).

최근 친환경 전기자동차 홍보대사로 발탁된 박진희의 환경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고 꾸준하다. 그는 트위터에 '일회용 NO! 촬영 중 속초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 식당에서 깔아 준 비닐 식탁보는 종종 횟집에 가면 주는 식탁보였어요. 일회용 쓰는 게 맘에 걸렸는데 분해제품이라고 써 있어 그나마 다행. 그렇지만 행주로 닦는 마무리가 더 좋겠어요', '전단지 버리지 말아야겠어요. 전단지 중엔 비닐 코팅

배우 공효진

방송인 배칠수

개그듀오 컬투

배우 최강희

된 것들이 많아서 분리수거도 잘 안 되는데' 등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것이다.

배우 최강희의 환경 사랑도 대단하다. 그 역시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연예인으로 유명하다. 최강희는 종이컵 대신 텀블러(손잡이가 없고 바닥이 납작한 큰 잔)를 사용한다. 에코 백(eco bag) 역시 그가 즐겨 찾는 아이템이다. 환경보호를 위해 평소에도 비닐봉지 대신 에코 백을 들고 다닌다.

아나운서 박찬민도 텀블러 마니아다. "종이컵 사용만 줄여도 연간 20년생 나무 7천6백 그루를 살릴 수 있다"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자원낭비를 줄이는 방법이기에 최대한 남기지 않고 다 먹으려 한다"고 말했다.

가수 김범수는 텀블러 대신 물통을 가지고 다닌다. 그가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스쿠버 다이빙에 빠지면서부터다. 김범수는 산호초, 열대어 등을 보면서 자연의 신비와 중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플라스틱 대신 종이로 재킷을 만든 음반을 내기도 했다.

공효진, 환경에세이 〈공책〉 펴내기도

패셔니스타 공효진은 환경에세이 〈공책〉을 출간한 바 있다. 책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을 전하려는 그의 진심을 담았다. 공효진이 제안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자전거 타기, 화초 키우기 등 환경을 위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제시하고 있다.

개그우먼 송은이는 환경을 위해 수저통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하다. 자신의 차량, 자주 가는 사무실, 방송국 스튜디오 등에는 '송은이 컵'이 있다. 종이컵, 나무젓가락, 일회용품 등과 같은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시작했다가 습관이 됐다고 한다.

개그 듀오 '컬투'의 정찬우와 김태균 역시 방송국에서 소문 난 녹색생활 사나이들. 김태균은 아들에게 자연사랑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 집 베란다에 고추와 토마토 화분을 놓아 두었다. 정찬우 역시 환경을 위해 절전 멀티탭을 사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연기자 전소민, 녹색소비자연대가 선정한 '이달의 스타'로

한편 녹색소비자연대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연기자 전소민을 '이달의 스타'로 선정했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연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개최한다.

전소민은 지난해 국내 최대 검색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자전거 즐겨찾기 캠페인 '이제, 자전거로 달려요!'의 친환경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에코걸'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다.

그는 미투데이를 통해 '수십억인들이 함께하는 녹색실천(Billions Acts of Green)' 참여 릴레이 서명 캠페인 포스터와 온라인 서명운동 참여페이지 주소를 링크로 하는 등 적극적인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

전소민은 클래식자전거 브랜드 '바이코레'의 친환경 에코캠페인 홍보대사가 됐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일산 호수공원과 한강시민공원을 자주 찾는다. 전소민은 미니홈피에 자신의 자전거 타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며 네티즌들도 자전거 타기에 동참할 것을 부탁했다. 네티즌들은 '같이 자전거 타고 싶은 연예인'으로 전소민을 꼽기도 했다. G

글·서일호 기자

퀴즈 풀고 직접 만드는 '체험! 환경수업'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낙도 등 특수지역 초등학교 41곳 방문 프로그램 진행

외딴섬으로 녹색성장 교육을 떠나는 이들이 있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지난해부터 녹색성장 교육의 사각지대인 도서지역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섬 지역의 아이들 역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세대들이기 때문이다. 인천의 작은 섬 '신도'에서 열린 녹색성장 교육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인천 영종도 옆 '신도'에 위치한 인천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는 전교생이 32명이다. 지난 4월 12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녹색성장교육팀이 '찾아가는 지구환경과 기후변화 교육'을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 아이들은 지구온난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펭귄과 북극곰이 직접 되어 보는 역할극을 통해 녹색성장을 배웠다.

"북극곰아, 안녕. 어디를 급히 가니?"
남극에 사는 펭귄이 묻자 북극곰이 대답한다.
"응, 북극의 얼음이 자꾸 녹아 집이 없어졌어."(북극곰)
"나도 남극에 얼음이 많이 녹아 먹이를 찾아 이사 가는 중이야."(펭귄)

'찾아가는 지구환경과 기후변화 교육' 시간으로, 펭귄과 북극곰 모양의 모자를 쓴 두 어린이가 역할극을 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역할극을 통해 직접 듣는 것이다. 펭귄과 북극곰의 대화를 듣는 아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다.

지난 4월 12일 인천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녹색성장교육팀이 찾아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인천시 인근 섬 아이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날은 인천의 영종도 바로 옆에 자리한 '신도'를 찾았다.

신도는 차로 천천히 1시간이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는 작은 섬이다. 이곳에 자리한 신도분교는 전교생이 32명이다. 고학년 대상의 녹색성장 교육에는 전교생의 절반인 15명이 참여했다.

지구온난화도 역할극으로 쉽게 이해

먼저 1교시로 역할극과 이론수업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을 맡은 장상욱 강사는 친근감을 주기 위함인 듯 닭 캐릭터의 옷을 입고 있었다. 명칭도 '강사' 대신 '후다닭'이라는 별명을 썼다. 친근한 모습의 강사가 전하는 환경 이야기에 아이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다.

이론 수업의 내용은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기후변화의 심각성, 이

를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필요성 등이었다. 장 강사는 "지구를 살리는 것은 이러한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천"이라며 녹색생활 실천을 강조했다.

2교시는 즐거운 게임시간이었다. 일명 '기후변화 골든벨'이다. 1교시에 배운 내용을 퀴즈로 복습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어른들도 헷갈릴 만한 문제들을 척척 풀어냈다.

"에어컨 한 대는 선풍기 몇 대의 전력소모량과 같을까요? 1대, 10대, 20대, 30대 중 정답을 고르세요."

고심하던 아이들은 이윽고 답을 써 내려갔다. 답은 30대. 곳곳에서 아이들의 기쁨과 아쉬움의 탄성이 갈렸다. 손에 땀을 쥐는 접전 끝에 마지막 두 명이 남았다. 마지막 문제는 OX퀴즈.

"여름철 적정 냉방온도는 섭씨 24도이다."

답은 X였다. 천현수(5학년)군이 정답을 맞혀 우승을 차지했다. 이처럼 아이들은 퀴즈를 풀며 녹색생활 실천법을 몸으로 체득했다.

마지막 3교시는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계속되는 활동교육에 아이들은 한껏 신이 났다. 이번 교육은 아이들이 만들기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이용하는 시간이다.

태양광 자동차도 직접 조립하고 시험운전

장 강사는 아이들에게 "태양이라는 따뜻한 에너지로 할 수 있는 게 많다"며 "태양광 자동차를 만들며 실제로 체험해 보자"고 말했다.

이날 만든 태양광 자동차는 태양광이나 백열등의 빛을 이용해 전기를 일으키는 태양전지판을 부착해 자동차의 모터를 작동시키는 원리로 움직인다. 아이들은 장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모터와 나사 등을 조립해 태양광 자동차를 완성했다.

드디어 완성된 자동차를 굴려 볼 시간. 햇살이 환한 운동장으로 나오자 아이들 손에 들려 있던 자동차의 바퀴가 '도르르' 굴러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태양광 자동차를 바라봤다. 이윽고 충전된 태양광 자동차가 운동장을 힘차게 달리기 시작하자 아이들도 덩달아 신나게 달렸다.

안은희(4학년)양은 "예전에는 태양광으로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몰랐다"며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진짜 재미있어요"라며 엄지손가락을 세워 보였다. 3시간에 걸친 녹색성장 교육이 끝난 후 아이들이 느낀 점을 이야기했다. 조예은(6학년)양은 "오늘 환경교육을 들으며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신도분교 5학년 김미영 담임교사는 "평소 아이들과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힘쓰는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며 "오늘 교육이 아이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정말 유익해서 신청하길 잘했다"고 말했다.

신도분교 아이들은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실제로 이용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마친 후 장상욱 강사는 "지난해에는 백령도에 교육을 갔다가 1주일간 배가 안 떠서 못 나온 적도 있다"며 "그러나 순수한 섬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할 때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지난해 4~11월 연평도, 백령도, 강화도 등 인천시 섬지역과 소외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14개를 찾아가서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처럼 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교육으로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태양광 자동차를 직접 만드는 등 체험 위주의 수업이 학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기존의 환경교육은 이론 교육을 먼저 한 다음 현장을 탐방하는 식의 환경교육이 대부분이지만 이번 환경교육은 게임을 통해 아이들이 환경문제를 직접 체험하며 습득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맞춤형 교육으로 어린이들 호응 높아

학생들과 학교의 폭발적인 호응에 따라 올해는 인천시에서 경기도 지역까지 교육이 확대됐다.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도서, 벽지, 접적 지역 등 특수지역 초등학교 41개를 대상으로 방문교육이 이뤄진다. 대상은 4~6학년의 고학년이며 1천5백여명의 소외지역 학생들이 교육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인력개발과 이강석 사무관은 "도서, 벽지와 같은 소외지역의 학생들 역시 지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세대"라며 "올해는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농촌학교까지도 교육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녹색성장 교육으로 아이들이 지구와 인간이 상생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 가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G

글·이제남 기자 / 사진·이경민 기자

멀티탭 하나로 전기료 월 1만원 절약… 한겨울 난방비가 고작 월 2만원

자그마한 녹색 실천이 지구를 살립니다

'녹색생활·녹색소비를 통한 환경운동'이라고 하면 어쩐지 거창해 보인다. 하지만 주부로서 그것들을 실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에코맘코리아에서 추천한 '에코맘' 정종숙(38·도봉구 창동)씨의 녹색생활·녹색소비 실천법을 배워보자.

종이컵 대신 머그잔이나 텀블러 등 개인 컵을 활용하고, 일회용 티슈 대신 손수건을 사용한다. 에코맘 정종숙씨는 "이런 실천이 곧 지구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편하니까 티슈를 뽑아 쓰고, 씻기 귀찮으니 머그잔 대신 종이컵을 쓰면 그만큼 그것들의 주재료인 나무는 줄어든다는 것이다.

작년 전국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버린 종이컵은 무려 3억7백만개로 나타났다. 나무 20만 그루가 종이컵 때문에 사라진 셈이다. 쓰레기 처리과정도 문제지만 '나무가 줄어들면 탄소량이 증가하고 탄소량 증가는 결국 지구의 온난화를 촉진한다'는 단순한 과학적 지식을 인식하고 생활한다면 누구나 에코맘이 될 수 있다.

정씨는 에코맘코리아의 에코맘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알게 되면서부터 에코맘으로 거듭났다고 말한다. 이웃인 에코맘코리아 문명희 이사의 권유가 계기가 됐다. 그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환경교육을 받았다. 교육 후엔 바로 실천에 옮겼다.

설거지물 받아 쓰고 헹굴 때만 흐르는 물로

전기 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멀티탭부터 샀다. 스위치 방식의 멀티탭 사용으로 플러그를 수시로 꽂았다 뺐다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이것으로 대기전력을 줄여 전기 절약을 실천할 수 있었다. "전기 사용량을 체크한 결과 멀티탭 연결로 한 달에 1만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했다"는 게 정씨의 설명이다.

정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관리비 영수증을 보고 전기·난방 사용량 표를 만들어 벽에 붙이고 자녀와 함께 매달 전기사용량이 증감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습관이 전기사용량에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난방비도 마찬가지였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정씨네 가족은 1월 사용분이 나오는 2월 난방비가 2만원에 불과했다.

설거지를 할 땐 물을 받아 썼다. "물을 받아 쓰면 설거지가 깨끗하게 안 될 거란 생각에 많은 주부가 흐르는 물에 설거지하는데, 세제를 쓰는 애벌 설거지는 물을 받아서 하고 헹굼만 흐르는 물에 해도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게 정씨의 얘기다. 정씨는 화장실에서도 공공화장실처럼 '대·소변' 구분식 양변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물 소비를 줄이고 있다.

철저한 분리수거는 기본이고, 재활용 생활로 쓰레기도 최소화하고 있다. 페트병 사용은 줄이고 사용하게 되더라도 화분 등으로 재활용한다.

가구에서부터 책상, 선반까지 정씨 집에선 재활용 물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정씨는 "절약으로 생활비를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녹색소비는 결국 에너지 절약, 이산화탄소 감축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집 밖에서도 녹색생활과 녹색소비는 이어진다. 가까운 거리는 운동 삼아 걷고, 가족 모두 자전거를 애용한다. 어쩌다 테이크아웃을 하게 될 땐 개인 컵을 사용하고 장을 볼 땐 장바구니를 챙겨 간다. "습관이 되면 전혀 번거롭지 않다"는 게 정씨의 설명이다.

에코맘은 단순히 절약과 재활용 등 녹색소비를 실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에코생활을 전파하는 역할도 한다. 이른바 '에

에코맘코리아가 제안하는 요일별 '에코라이프'

- 월 원래 막히는 월요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습니다.
- 화 불의 날인 화요일은 에너지를 좀더 절약하겠습니다.
- 수 물의 날인 수요일은 빨래는 한꺼번에 하고 물을 절약하겠습니다.
- 목 나무의 날인 목요일은 종이컵이나 일회용품을 쓰지 않겠습니다.
- 금 자원을 생각하는 금요일은 돈도 벌고 지구도 살리는 분리수거 및 친환경상품을 사용하겠습니다.
- 토 흙의 날인 토요일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겠습니다.
- 일 태양의 날인 일요일은 빨래는 자연건조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근희 기자

페트병을 화분으로 재활용하고 있는 에코맘 정종숙씨. 그녀의 녹색생활은 재활용에서 시작해 환경 교육 강의로 이어진다.

코코칭'이다. 정씨는 "에코맘코리아의 에코맘 1기 과정을 통해 녹색 생활·녹색소비에 대한 에코코칭의 기본기를 갖췄다"고 한다.

환경연합 사회환경교육센터의 환경 관련 자원봉사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이후 지난 2월부터 도봉환경교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과 어린이집 유아들을 대상으로 기후와 에너지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인근 초·중·고등학교에서 여는 환경교실에서는 폐의약품 안전 수거와 관련한 수업을 진행한다.

자녀 등 환경 홈스쿨링 실천

녹색생활 실천을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자녀와 또래의 동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환경 홈스쿨링도 실천하고 있다. 기존에 품앗이 개념으로 진행하던 독서수업에 환경관련 책을 좀 더 추가한 것이지만 아이들의 반응이 뜨겁단다. "초등학교 3학년인 첫째 아이는 환경 책을 읽으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최근 환경부 인증 프로그램 '그린섬'을 수강하고 있다"고 전한다.

"지구를 살리는 일은 혼자 실천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정씨는 "자녀를 생각해 소비생활의 중심인 주부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또 "앞으로도 간단한 실천법으로 더 많은 주부가 에코맘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단법인 에코맘코리아에서는 4월부터 8월까지 주부들을 대상으로 '에코맘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매월 주부 20명을 대상으로 첫째·셋째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광화문 녹색성장체험관에서 무료로 진행한다.

'기후변화와 가까운 먹을거리', '지구와 가족을 생각하는 녹색소비', '생활비 다이어트를 위한 올바른 에너지 사용법', '버려지는 의약품 무엇이 문제인가' 등 주부들이 공감할 만한 교육내용이 포함돼 있다. 참가는 에코맘코리아 홈페이지(www.ecomomkorea.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에코맘코리아 문명희 이사는 "에코맘 양성 프로그램은 소비생활의 중심인 주부들이 저탄소 녹색생활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면서 "프로그램을 통해 에코맘뿐 아니라 환경운동을 전파할 수 있는 '에코 빅마우스'들이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G

글·박근희 기자

경제속도만 지켜도 연료 6퍼센트 절약

녹색생활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친환경적으로 자원과 에너지를 이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현명한 생활습관(life style)을 말한다. 우리들의 작은 생활습관 하나가 녹색사회 구현의 밑거름이 된다. 후손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작은 일부터 우리 모두 녹색생활을 시작할 때다. (오려서 사용하세요)

일러스트·주만성

가정, 상업, 교통 등 비산업 부문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43퍼센트가 배출된다.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양수길 민간위원장)는 생활 속에서 쉽게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녹색생활의 지혜'를 발굴·보급하고 있다.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녹색생활 실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부문별 녹색생활의 노하우를 알아본다.

가정 녹색습관으로 경제도 살리고, 지구도 살린다

- 여름엔 섭씨 26도, 겨울엔 섭씨 20도로 유지: 냉난방 온도를 섭씨 1도 조정할 경우 연간 1백10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 감소. 냉난방 비용은 3만4천원 절약.
- 절전형 전등으로 교체 : 백열등(60와트)을 형광등(24와트)으로 교체 시 연간 17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 감소.
-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 둔다: 대기전력은 에너지 사용 기기 전체 이용 전력의 약 10퍼센트 차지.
-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의 생활화: 승용차 이용을 일주일에 하루만 줄여도 연간 4백45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 감소.
- 장바구니 이용: 일회용 비닐봉지가 분해되는 데 1백 년 이상 걸린다. 가정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만 하여도 연간 1백88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 감소.
- 친환경상품 구매: 친환경상품 사용하면 가정당 연간 3백50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 감소.
- 샤워 시간은 줄이고, 빨래는 모아서: 샤워 시간을 1분 줄이면 가구당 연간 4.3킬로그램, 빨래를 모아서 하면 가구당 연간 14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 감소. 설거지통을 이용(10분)하면 약 80리터의 물 절약.
- 음식은 적다고 느낄 만큼만 조리: 연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15조원이 넘는다.

직장 녹색실천으로 건강도 챙기고, 실적도 올린다

- 여름엔 넥타이를 풀고 겨울엔 내복 착용: 노타이나 긴소매 스웨터 하나만으로도 섭씨 1~2도의 체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여름철 냉방 온도는 섭씨 26~28도, 겨울철 난방 온도는 섭씨 18~20도로 유지.
- 퇴근 시 전기 플러그를 뽑는다: 사무실마다 메인 스위치를 설치하면 전기낭비를 손쉽게 줄일 수 있음.
- 컴퓨터 전원을 끄고 퇴근: 컴퓨터를 1시간 켜 놓을 경우 1백와트아워의 전기가 낭비됨.
- 4층 이하는 계단을 이용: 엘리베이터 1회 이용 시 약 30와트아워의 에너지가 소모되며 12.7그램의 이산화탄소 발생.
- 점심 때에는 조명과 냉·난방기를 끈다: 하루 1시간 형광등 15개를 끄면 연간 약 74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 감소.
- 이면지 재활용: 인쇄용지 1박스 사용 시 약 4.4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 발생.
- 개인 컵 사용: 하루에 종이컵을 5개 사용하면 연간 20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 배출.
- 출·퇴근 시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

일러스트·주만성

유통매장 그린 마케팅으로 실적과 고객 이미지를 높인다

- 냉·난방기기별로 에너지(온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장별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해 운영.
- 절전형 조명으로 교체: 옥외용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면 개당 연간 15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 감소.
- 에너지 절약형 장치 설치: 에어 커튼 등 에너지 절약형 장치 활용.
- 친환경상품 권장: 친환경상품 사용으로 가정당 연간 3백50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 감소.
- 포장재는 줄이고, 포장 쓰레기는 분리·배출: 폐기물 1킬로그램당 약 1백20그램의 이산화탄소 발생.
- 홍보는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전단 홍보를 위해서는 많은 종이와 인쇄용 잉크가 소모.
- 자전거 편의 시설을 설치한다.

군부대 철저한 녹색실천으로 나라에 충성, 지구에 충성

- 소대별로 온실가스 배출저감(녹색생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 충성클럽 이용 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
- 기계화 장비 운용 시 공회전을 최소화한다.
- 사이버 정보 지식방은 이용시간 이외에 전원을 차단한다.
- 실내 전등은 절전형 고효율 전등으로 교체한다.
- 빨래는 모아서 세탁한다.
- 먹을 만큼만 담아 잔반을 남기지 않는다.
- 플러그를 뽑아 에너지를 절약한다.

식당 솔선수범하는 녹색실천이 돈 버는 길

- 반찬은 고객 수에 맞게 적정량을 제공한다.
- 일회용 식탁보, 종이컵 등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 광고판은 과도한 조명을 자제하고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
- 제철에 생산된 농산물을 음식재료로 사용: 모든 음식재료는 운송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 음식재료는 냉장고 보관에 알맞은 양으로 구매: 보관 음식물 10퍼센트 증가 시 전기소비량은 3.6퍼센트 증가한다.
- 냉장고 문의 여닫는 횟수를 줄인다.
- 재료를 다듬거나 설거지하기 전에 미리 이물질을 제거해 물 사용량을 줄이고 수질오염도 예방한다.
- 음식물 쓰레기는 철저히 분리 배출.

건설현장 작은 것 실천으로 쾌적한 건설 현장

- 대기오염, 소음 저감 대책을 실천한다.
- 현장 사무소는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치한다.
- 승용차 함께 타기 또는 통근버스를 운영한다.
- 건설장비는 수시로 점검하여 에너지 손실을 줄인다.
- 공사장 내에서 급가속·급제동·공회전을 하지 않는다.
- 폐자재 재활용: 보도·경계 블록, 타일, 성상이 안정된 폐콘크리트·토사 등은 선별해 재사용.
- 이식 가능한 수목은 최대한 활용: 소나무 1백 그루는 연간 5백 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 간이 화장실은 적정하게 관리: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운전 **안전운전으로 이웃 배려, 지구 배려**

- 경제속도(60~80킬로미터) 준수: 속도 변화가 큰 운전을 하면 연료가 최대 6퍼센트까지 더 소모된다.
- 과적 금지: 과적은 도로훼손, 대형사고 등을 유발한다. 2백20킬로그램의 짐 추가 시 연료를 2퍼센트 더 소모한다.
- 혼잡구간과 시간을 파악해 운행 효율을 높임: 혼잡시간에 정체구간을 통과하는 것은 공회전하는 것과 유사.
- 물건을 싣고 내릴 때는 시동을 끈다: 5분 공회전 시 연간 1백21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승용차).
- 물류터미널 공동이용으로 화물수송·배송 비용을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발생도 줄인다.
- 차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대기오염을 줄인다.
- 에어컨은 필요할 때만 사용: 에어컨을 켜면 최대 20퍼센트 정도 연료 소비가 증가한다.
- 화물운송 시 덮개를 씌워 비산먼지를 줄인다.

농촌 **건강한 자연을 지키는 일은 농촌이 가장 먼저**

- 농약병, 폐비닐은 반드시 회수해서 버린다.
- 비료는 농작물에 필요한 양만 사용한다.
- 천적 이용 등 환경친화적 해충방제로 농약 사용을 줄인다.
- 가축 분뇨를 방치하거나 버리지 않는다.
- 무단 소각을 하지 않는다: 플라스틱 10킬로그램 소각 시 28.1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 발생.
- 농기계는 마을별로 공동사용해 비용 절감.
- 온실 및 비닐하우스는 연료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설치한다.
-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절약한다. .

대학캠퍼스 **함께하는 녹색생활이 인재를 키우는 힘**

- 강의실 문 닫아 새는 전기 막기: 에어컨으로 실내온도 섭씨 1도 낮추는 데 약 7퍼센트의 전력이 더 소모된다.
- 공부도 함께하고 에너지도 함께 쓰고: 강의실 하나당 1시간에 약 5백 와트아워의 전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형광등 20개 기준).
- 빈 강의실·동아리방·연구실의 냉·난방기와 전등은 꼭 끈다.
- 교내식당에선 맛있게, 적당하게, 남지 않게.
- 개인 컵 사용으로 깨끗하게, 건강하게: 하루에 종이컵을 5개 사용하면 연간 20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 컴퓨터 출력은 필요할 때만, 이면지는 다시 한번 사용.
- 자전거·버스, 지하철, 걷기로 그린 캠퍼스를 만든다.
- 포스터 현수막은 줄이고, 홈페이지·이메일 홍보를 늘린다.

초중등학교 **몸에 익은 녹색생활은 우리 학교 전통**

- 어두운 곳엔 고효율 전등, 밝은 곳엔 햇살 전등 : 하루 1시간 형광등 15개를 끄면 연간 약 74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 안 쓸 땐 컴퓨터도 휴식, 지구도 휴식: 전원을 끄게 되면 매시간 42.4그램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인다.
- 이메일 알림장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인쇄용지 한 장당 1.7그램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 교복, 교재는 깨끗하게 물려주기: 교과서의 20퍼센트만 물려받아 써도 2천2백 톤의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다.
- 수도꼭지는 잠그고, 에너지 낭비도 잠그고.
- 빈병과 캔은 분리수거함에: 알루미늄캔 1개를 재활용하면 60와트 백열전구를 약 27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절약.
- 교실별로 녹색생활 지킴이를 지정하고 온실가스를 줄여 나간다.
- 급식은 맛있게, 적당하게, 남지 않게. G

글·이상흔 기자

전자악기 No! 자연음으로 노래해요!

4월 22일 '지구의 날' 맞아 서울광장서 언플러그드 콘서트

"요즘 저는 녹색생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연간 1인당 탄소배출량은 9.3톤이라고 하네요. 1톤이 얼마만큼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1톤은 축구공 1백개에 해당하는 부피랍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안고 있는 축구공이 1년에 9백30개라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더 놀라운 것은 9.3톤의 이산화탄소를 상쇄시키려면 매년 어린 소나무 83.7그루를 심어야 합니다."

4월 22일 지구의 날 기념행사인 '언플러그드 국민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가수 김현철이 전하는 말이다. 언플러그드는 전자악기를 사용하지 않은 음악을 말한다.

이날 공연은 서울광장에서 열리며 김장훈 콘서트, 통기타·타악기와 같은 무전력 악기를 이용한 국민연주단 합동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콘서트에 필요한 전력은 청계광장(4월 21일)과 서울광장(4월 18, 19, 21, 22일)에서 1주일간 자전거 발전, 태양광 발전 등으로 공급·축적된 에너지를 활용한다.

이날 콘서트 무대에 오르는 가수 김장훈은 "지구를 위한 1주일의 실천을 모아 지구에게 선물하는 날, 저와 함께 지구의 생일을 축하하고 녹색생활 실천으로 만든 선물을 지구에게 함께 전합시다"라면서 "탬버린,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손 박수 등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악기를 가져와서 함께 축하송을 불러요"라고 밝혔다.

21일엔 서울 남산서 '2011 얼루어 그린 캠페인'도

해외에서도 자전거로 전력을 만들어 콘서트를 연 적이 있다. 2008년 이스라엘에서 '지구촌 전등 끄기'의 메인 행사로 시민들이 라빈 스퀘어에 모여 록 밴드의 콘서트가 열리는 동안 자전거로 전력을 만들어 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총 4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4월 21일에는 '지구의 날'을 기념해 서울 남산에서 '2011 얼루어 그린 캠페인'이 열린다.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뜻을 되새기는 환경 축제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2011 얼루어 그린 캠페인'에서는 가수 이효리, 브라이언, 연기자 홍수아, 김사랑, 이윤지, 전혜빈 등이 그린 이슈의 하나로 "지구의 주인은 인간만이 아닌 동물과 자연 모두"라는 슬로건을 외칠 예정이다.

이 캠페인에서는 '에코 콘서트'와 '에코 팝업스토어', '친환경 걷기 프로그램', '에코 전시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남산 팔각정 앞에서 열리는 '에코 콘서트'는 환경과 동물보호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모델 겸 가수 장윤주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슈퍼스타 K'의 장재인을 포함한 가수들이 참여한다.

글·서일호 기자

연합

연합

지구의 날 기념행사인 '언플러그드 국민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김현철(사진 왼쪽)과 이 콘서트 무대에 서는 김장훈.

녹색시대 '녹색직업'이 뜬다

한국고용정보원, 1백8개 직업 정보서 발간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자, 유비쿼터스 도시기획자, 온실가스처리 연구원, 에너지 진단사, 친환경 건축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는 이러한 '녹색직업'이 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환경오염 저감 ▲신재생에너지 ▲환경서비스·환경보호 및 복원 등 3개 분야와 관련한 1백8개 녹색직업을 소개하는 직업정보서 〈녹색직업〉을 최근 발간했다.

〈녹색직업〉의 1부에서는 녹색직업의 등장 배경, 정의 및 특징, 직업세계의 변화 등에 대해 정리했고, 2부에서는 18개 녹색산업과 1백8개 녹색직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담았다. 2부의 녹색산업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녹색산업의 등장 배경, 향후 전망을 담았고, 1백8개 녹색직업의 ▲하는 일 ▲활동 분야 ▲요구되는 능력 ▲입직 가능 교육·훈련 ▲관련 자격 등을 수록했다.

일러스트·유제민

디젤엔진 정비원 등 감소·소멸할 직업도 수록

이 책은 '녹색직업(Green Jobs)'을 '온실가스 감축과 지구 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통해 인류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가는 데 관련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로 정의했다.

이 책은 또 녹색경제의 등장으로 새롭게 출현하거나 전환하는 직업들과 더불어 사라질 직업들도 예상했다.

새로운 기술 또는 서비스의 등장과 함께 새롭게 나타난 직업으로 태양광발전 연구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 기술자, 에너지 진단사, 탄소배출권 거래중개인 등을 들었고, 기존 직업이 녹색기술을 접목하여 녹색직업으로 전환한 경우로는 친환경 건축가, 조경기술자, 풍력발전 시스템 설치원 등을 들었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제품이나 산업 활동이 시장에서 점차 거부되거나 첨단녹색기술이 등장하면서 감소 또는 소멸될 직업으로 쓰레기매립 작업원, 디젤엔진 정비원, 화력발전소 운전원, 종이인쇄 관련 직업 등을 예상했다.

〈녹색직업〉은 3월 개학을 맞아 전국 공공도서관, 대학 취업지원실,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실 등에 1천8백여 부가 배포됐다.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work.go.kr)에서 PDF 파일로도 볼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직업연구센터 김동규 부연구위원은 "〈녹색직업〉은 청소년 및 구직자, 그리고 진로직업지도담당자, 학부모, 교육훈련담당자, 기업 인사담당자, 고용정책입안자 등에게 효율적 인적자원 개발과 미래지향적 진로탐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올 하반기에는 〈녹색직업〉을 좀 더 쉽게 풀어 중고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중고생을 위한 녹색직업〉도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G

글·박경아 기자

한국고용정보원 ☎02-2629-7172·www.keis.or.kr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work.go.kr

1백8개 녹색직업 리스트

I. 환경오염 저감 분야 (42개)	
친환경 기계 및 설비	전기자동차배터리 개발자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기술자
	전기자동차 모터개발자
	하이브리드동력 시스템기술자
	선박환경설비 기술자
	친환경선박 설계기술자
	온실가스 저감장치기술자
	고효율엔진기술자
	친환경생산설비 기술자
	전기자동차배터리 충전시스템 운영원
	선박환경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원
	온실가스 저감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원
	선박환경검사원
친환경 건설	유비쿼터스도시 기획자
	유비쿼터스도시 기술자
	유비쿼터스도시 인프라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원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운영원
	지리정보시스템(GIS)전문가
	지능형교통시스템(ITS)전문가
	친환경건축가
	친환경도시계획가
	조경기술자
	친환경건설자재 연구원
온실가스 처리	온실가스처리 연구원
	온실가스처리 설비 기술자
	온실가스측정기 개발자
	온실가스처리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원
	온실가스처리설비 운영원
친환경 제품 개발	LED연구원
	LED제품개발자
	전기에너지 고효율 및 절감 제품 개발자
	친환경제품소재 개발자
	친환경도료 개발자
	제품생산 환경평가기술자
	전자제품에너지 분석원
	제품환경분석원
친환경 농업	친환경농자재 연구원
	친환경농법 연구원 및 컨설턴트
	친환경병충해방제 연구원
	농업환경생태 연구원
	친환경농자재 시험원 및 평가원
	친환경농작물 재배자

II. 신재생에너지 분야 (41개)	
태양광 발전	태양광발전 연구원
	태양광발전시스템 기술자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원
	태양광발전시스템 운전원
태양열 발전	태양열발전 연구원
	태양열발전시스템 기술자
	태양열발전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원
	태양열발전시스템 운전원
지열에너지	지열에너지연구원
	지열시스템기술자
	지열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원
풍력 발전	풍력발전연구원
	풍력발전시스템기술자
	풍력발전시스템설치원
해양에너지	해양에너지연구원
	해양에너지시스템기술자
	해양에너지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원
폐기물에너지	폐기물에너지화 연구원
	폐기물에너지화설비기술자
	폐기물에너지화설비설치 및 유지보수원
	폐기물에너지화설비운전원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에너지연구원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스템기술자
	바이오가스분석원
	바이오가스시스템 운전원
	바이오에너지생산시스템설치 및 유지보수원
연료전지	연료전지연구원
	연료전지시스템 기술자
	수소생산시스템 기술자
	연료전지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원
화석연료 청정화	화석연료청정화 기술연구원
	화석연료청정화 설비기술자
	화석연료 청정화설비설치 및 유지보수원
수력 발전	수력발전연구원
	수력발전시스템 기술자
	수력발전운전원
	수력발전설비 유지보수원
	수력발전설비 설치원
신재생에너지 사업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신재생에너지 입지환경분석전문가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원사무원

III. 환경서비스, 환경보호 및 복원 (25개)	
환경서비스	탄소배출권거래 중개인
	기후변화전문가
	제품환경컨설턴트 (에코디자인 컨설턴트)
	환경컨설턴트
	에너지진단사
	온실가스인증 심사원
	기상컨설턴트
	재활용기술자 및 컨설턴트
	생태어메니티 전문가
환경보호 및 복원	고도물처리연구원
	고도물처리플랜트 기술자
	산림보호기술자
	생태복원기술자
	야생동식물연구원
	해양환경연구원
	대기환경 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수질환경 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폐기물환경 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토양환경 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환경영향평가원
	환경검사원
	오폐수처리설비 운전원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원
	산림보호원
	환경감시원

취재팀의 부탁에 이동탁과 한서혜씨가 고난이도의 발레 동작을 보여줬다. 상대방의 체중이 온전히 실리는 발레리노와 다리 힘으로만 매달려야 하는 발레리나 모두 상당히 힘든 동작이지만 프로답게 시종일관 밝은 표정을 유지했다.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의 주연 맡은 이동탁-한서혜 커플

원앤 투앤… 세계무대로 점프! 점프!

23세의 동갑내기 이동탁과 한서혜씨는 발레계의 떠오르는 샛별이다. 지난 3월 유니버설발레단의 올 시즌 오프닝 작품인 발레 〈돈키호테〉에서 최연소 주연 커플을 맡아 화려한 연기를 선보였다. 최근에는 한국의 창작 발레 〈심청〉을 통해 해외 무대로 당당히 뻗어나가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총 6회의 공연에는 각기 다른 커플이 주역을 맡았다. 이 중 이동탁씨와 한서혜씨는 여섯 커플 중 최연소로 어려운 역을 당차게 소화해 냈다.

〈돈키호테〉는 정통 '희극 발레'로 손꼽히는 명작이다. 화려한 볼거리가 많아 일반인들도 즐기면서 볼 수 있는 공연이지만 남녀 주역에게는 고난이도의 춤동작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프리마돈나가 되기 위해서는 차이코프스키의 3대 발레작 〈호두까기 인형〉,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함께 꼭 거쳐야 하는 작품이다.

한씨는 "이번 공연으로 〈호두까기 인형〉, 〈백조의 호수〉에 이어 〈돈키호테〉까지 경험해 봤다"며 "앞으로 남은 하나인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꼭 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KBS 〈1박2일〉 출연으로 '얼짱 발레리나'로 잘 알려진 한씨는 가녀린 몸과 달리 남자만큼의 회전동작을 소화할 정도로 기술이 좋고 점프도 잘 하는 것이 장점이다. 2009년 유니버설발레단에 입단

해 〈호두까기 인형〉, 〈백조의 호수〉, 〈심청〉 등의 발레공연에서 주인공을 맡았다. 이 중 유니버설발레단의 창작 발레 〈심청〉은 해외에서 호평받은 작품으로 한국발레를 세계로 역수출하는 계기가 된 역작이다.

지난해 10월 입단한 이씨는 단 5개월 만에 주역을 따낸 실력파다.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긴 그는 발레하기 좋은 신체조건을 갖췄으며 카리스마 있는 춤을 선보인다. 이처럼 이들은 나이는 어리지만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발레를 시작한 것은 둘 다 초등학생 때부터였다.

"초등학생 때부터 춤추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던 중에 친구들이 다리를 쫙 찢는 것을 봤는데 무척 부럽더라고요. 어디서 배웠냐고 물었더니, 친구들이 발레학원을 얘기하더군요. 그곳에 가면 일주일 만에 다리를 찢을 수 있다고. 그렇게 발레를 시작했죠."(이씨)

그러나 이씨는 중학교 때 사춘기를 겪으며 잠시 발레를 그만두기도 했다. 태국무술인 '무에타이'를 배웠지만 발레를 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다시 발레를 시작한 그는 앞으로는 계속 발레만 할 거라며 애정을 보였다.

"요즘 발레의 대중화를 피부로 느껴요"

이씨가 '친구 따라 강남 간' 경우라면 한씨는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발레에 대한 꿈을 키웠다.

"엄마는 발레 선생님, 고모는 성악, 사촌 오빠는 음악, 사촌언니는 미술 등 제 주변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발레를 시작했죠. 어린 마음에 예쁜 발레복도 좋았고요."(한씨)

한씨는 발레 영재 코스를 걸어온 재원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시험을 봐서 2005년 입학했다. 또래에 비해 2년이나 빠른 입학이었다.

해외콩쿠르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2003 상하이 국제무용콩쿠르 3위, 2005 로잔 국제발레콩쿠르 3위, 2008 바르나 국제발레콩쿠르 은상, 2008 서울국제무용콩쿠르 2위 등을 수상했다.

한씨와 함께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나온 이씨는 수상경력은 많지 않지만 꾸준히 해외무대에 도전해 온 노력파다. 그동안 해외콩쿠르에 출전하면서 외국학생들과 실력을 겨루며 많이 배웠다고 한다. 2010년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에서 동상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한국발레 재원들의 세계진출이 활발하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도 발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한씨는 "요즘 발레의 대중화를 피부로 느낀다"며 "과거에 비해 시민들이 공연티켓을 직접 구매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KBS 〈개그콘서트〉에서 '발레리노'를 소재로 한 개그도 국민적 인기를 끌고 있다.

"저도 평소에 개콘의 '발레리노'를 즐겨보고 있어요. 그분들이 인기를 끌면서 발레가 많이 알려지고 있어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 발레리노를 개그 소재로 활용해 안 좋게 보이더라도 실제 찾아온 관객에게 웃음거리가 아닌 '멋진 발레'를 보여주는 것이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이씨)

한편 요즘 유행어가 된 '어텐션'은 발레 연습 시 거의 안 쓰는 말이라고 한다.

발레 〈심청〉으로 대만 등 해외 투어 함께 참여

세계적인 춤인 발레에 매진하고 있는 이들에게 앞으로 세계무대 진출의 목표를 물어봤다.

"한국발레가 외국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솔직히 국제콩쿠르에 나가 보면 한국인들이 1~2위를 휩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발레에서 한국이 뛰어나다는 것을 공연을 통해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이씨)

세계무대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들이 꼽는 발레리노 혹은 발레리나의 조건은 무엇일까. 한씨는 발레는 정말 힘든 일이라며 건강한 몸과 끈기, 인내력을 꼽았다.

한씨는 "과학적으로 발레리나가 전막을 다 췄을 때랑 축구선수가 전후반 쉬지 않고 뛴 것의 체력 소모가 같다"며 "영화 〈블랙스완〉의 여주인공이 거식증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얼마나 많이 먹는데요"라며 체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씨도 어마어마한 각오와 노력, 끈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래식음악에 맞춰 한없이 우아해 보였던 발레. 사실 그 뒤에서는 엄청난 끈기와 인내를 갖고 춤을 추는 이들이 있었다.

올해 유니버설발레단은 발레 〈심청〉으로 대만, 싱가포르 등 해외 투어를 떠난다. 이 둘 역시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앞으로 세계에 한국발레를 널리 알릴 이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G

글·이제남 기자 / 사진·정은주 기자

치매 수호천사와 응급소생의 종결자

'지방행정의 달인' 연재 세번째 주인공은 보건 · 위생 분야의 '달인'으로 선정된 서울 양천구보건소 이순례씨와 광주광역시 동부소방서 방정수씨다. 이순례씨는 '치매 · 장애인 관리'에서, 방정수씨는 '응급처치 · 심폐소생'에서 으뜸으로 꼽혔다.

김승완 기자

이순례씨는 치매노인과 장애인들과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이 '달인'에 이르게 된 노하우라고 말한다.

치매 · 장애인 관리의 달인 서울 양천구보건소 **이순례씨**

치매 병세 지연시킬 관련 정보 가족에게 제공

양천구 신월2동에 있는 양천구치매지원센터는 치매 상담에서부터 전문의 진료까지 원스톱(One Stop)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대부분 자치단체가 치매센터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해 전문의 진료 시스템까지 갖춘 곳은 오직 이곳뿐이다. 2008년 6월부터 지역의료기관인 이대 목동 병원과 협력한 의료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에게 치매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천구는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해 민간의료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인건비 예산(연간 1억2천만원)과 진료시스템설치(1억7천만원), 치매 원인 확진 검사비용(1인당 8만원) 절감 혜택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양천구치매지원센터가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이순례(간호사)씨의 노력이 컸다. 양천구보건소 간호사로 25년간 근무해오고 있는 이씨는 '치매 수호천사' '장애인 수호천사'로 통한다. 그만큼 관내에서 치매와 장애인에 관한 한 그녀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그는 "초기 치매 환자식별을 위해 보건소나 치매센터를 찾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많은 대화를 나눈 게 노하우라면 노하우"라고 말한다.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도 치매 의심 환자라고 생각되면 곧바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치매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가족에게 제공하고 있다.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해 집단건강강좌와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등을 순회하며 건강교육을 시행해 올바른 치매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지역에서 치매 선별 검진을 받은 주민만 1만9천여 명에 이른다. 그중 7백88명은 치매 환자로 확인돼 관리와 치료를 받고 있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5백70명도 치매 진행 지연 전문 교육과 관리를 받으며 치매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이씨는 "치매인 줄 모르고 있던 초기 치매 환자를 바로 센터로

연결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왔을 때가 가장 보람 있다"고 말한다. 그의 노력에 주민들의 칭찬도 끊이질 않는다. 센터를 찾은 권명자(68·강서구 화곡동)씨는 이씨를 보자 손을 꼭 잡으며 "꼭 딸 같다"면서 "얼굴 보면 좋아서 강서구에서 일부러 양천구치매지원센터까지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활약은 치매 관리에 그치지 않는다. 방문보건사업과 결혼이민자 돌보미 사업, 장애인 재활치료 사업 등 보건소 업무에도 열성이다. 요즘은 새터민을 위한 방문보건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향후 노인시설에서 봉사해 보고 싶고 노인시설을 직접 운영해 보고 싶다"는 그는 "양천구치매지원센터와 같은 전문화된 시설이 적어도 군(郡) 단위로 생겨 노인 치매 예방과 치료 사업이 더욱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응급처치·심폐소생의 달인 | 광주 동부소방서 **방정수씨**

갑자기 심장 멈춘 시민 6명 소생시켜

"대한민국 소방관 모두가 구조·구급·응급처치의 달인입니다. 국민 생명과 연관돼 있으니까 항상 숙련하고 연마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춘 6명의 시민을 살린 전남 광주 동부소방서 119구급대원 방정수(소방교)씨는 '응급처치·심폐소생의 달인'으로 선정됐다.

2003년 9월부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방씨는 2007년 1월 호흡곤란을 일으킨 노인을 심폐소생술로 되살려내는 것을 비롯, 2008년 12월경 축구 경기 도중 호흡과 심장이 멈춘 이모씨(29), 2009년 성탄절 급성 심근염으로 쓰러진 27세 청년, 2010년 3월 동구 한 모텔에 투숙 중 심장이 멈춘 김모씨(34) 등을 심폐소생술로 구해냈다.

이 외에도 방씨는 기관 내 삽관 등을 이용한 인공호흡 5백12건, 급성질환자응급처치 8천59건, 교통사고 등 외상환자 응급처치 5천58건 등 응급처치 이력을 자랑한다. "119구급대에 들어오기 전 응급실 근무할 당시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응급처치술을 배운 것이 큰 도움이 됐다"는 게 방씨의 설명이다.

그는 "심장이 갑자기 멈춘 환자는 4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오고, 10분 이상 경과하면 뇌사에 이를 확률이 높아진다"면서 "구조·구급 활동은 결국 시간싸움"이라고 강조했다.

방씨는 '시간싸움'에 착안해 누구라도 심폐소생술을 따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휴대전화기에 기본 메뉴로 심폐소생술 동영상을 탑재하자"는 아이디어를 '생활공감 정책' 분야에 제안해 2009년 국무총리상도 받았다.

방씨가 제안한 동영상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서 흉부압박법 등을 통해 환자의 기도를 유지해 주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휴대전화기에는 그가 제안한 심폐소생술 동영상이 기본 메뉴로 탑재돼 시판되고 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응급조치법을 익혀 '응급처치의 달인'이 돼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G 글·박근희 기자

조선DB

"전국민이 응급처치의 달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방정수씨. '휴대폰 내 심폐소생술 동영상 탑재' 아이디어로 2009년 국무총리상도 수상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행정도우미 된 곽기정씨

“취업되니 10년 투병 고단함이 싹 가셔요”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주민센터는 곽기정씨의 일터다. 2007년 7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채용돼 민원 업무를 돕고 있다. 만성신부전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10년간 무직이었던 그이지만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일하며 ‘굵직한 상’도 받았다.

장애인과 노인들의 손과 발이 돼 주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곽기정씨. 그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 “행복한 월급쟁이가 됐다”고 말한다.

“점심은 드셨어요? 오늘 복지관의 반찬은 뭐예요?”

“요새 통 입맛이 없어.”

“에이, 입맛 없어도 식사는 꼬박꼬박 하셔야 돼. 기운 떨어져서 안 돼.”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주민센터 직원과 민원인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이 모자지간이 따로 없다.

“어르신들은 작은 관심에도 즐거워하세요. 말 몇 마디 건네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겐 힘이 되죠.”

신길1동 주민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곽기정(39)씨의 말이다. 곽씨는 주민센터를 찾은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이나 시력이 좋지 않은 노인들이 민원 업무를 볼 때 기꺼이 손과 발이 돼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도 장애인이다. 사람들 말처럼 겉으로 보기에 비장애인처럼 ‘멀쩡해 보여도’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다.

동병상련으로 장애인·노인들의 손발 돼

“20대 중반에 만성신부전증 판정을 받았어요. 2000년 1월에 ‘신장장애2급’으로 등록됐죠. 당시만 해도 한창 나이에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렸다는 것도 인정하기 싫었고, ‘장애인’이라는 사실 또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신장장애2급'이라는 판정은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1주일에 네 번 4시간씩 투석을 해야 해 오랫동안 해 오던 감정평가사 일도 포기했다. 그는 "일하는 데 문제가 없어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우니 일할 기회마저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강과 어려운 형편에 결혼도 미뤘다. 부양할 가족은 없지만 병원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졌갔다. 무엇보다 일하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생활이 10년째 계속되다 보니 무기력해지는 것만 같았다.

그런 그에게 일할 기회가 생겼다. 바로 장애인일자리사업이었다. 그는 200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시행 첫해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됐다. 현재 신길1동 주민센터에 배치받아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경로교통카드 발급 등 장애인과 노인 관련 민원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곽기정씨가 서종출 동장(왼쪽), 박옥란 복지팀장(가운데)과 함께 민원 업무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내부장애(신장장애, 심장장애 등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지만 내가 장애인이다 보니 장애인 관련 민원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더라고요. 1주일에 네 번은 투석을 위해 병원에 가야 해 일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게 돼요."

직접 수화 배워 청각장애인과 소통

그의 근면성실함은 자타가 공인한다. "대민 업무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곽씨가) 언제나 친절하고 살갑게 대해 주니 동사무소를 찾는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게 서종출 동장의 설명이다.

박옥란 복지팀장도 "실제로 먹을거리를 가져와 곽기정씨에게 주는 노인들이 많다"고 전한다. "2009년엔 그의 도움에 감동 받은 한 민원인이 영등포구청장에게 직접 청원해 '모범구민'상도 수상했다"고 귀띔한다. 청각장애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화도 배웠다.

"주민센터를 찾는 청각장애인들이 종이에 손 글씨로 자신의 민원을 호소하는 것을 보며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는 좀 더 편한 방법으로 소통하기 위해 수화를 독학했다.

하지만 독학은 한계가 있었다. 그의 노력을 알게 된 박 팀장은 그에게 영등포구청에서 진행하는 '사랑의 수화교실'을 수강할 것을 제안했고 그는 이를 수강해 고급과정까지 수료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알려지면서 작년엔 장애인일자리사업 최우수 참여자로 선정돼 최우수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장애인들도 근면 성실히 자신이 맡은 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그는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로 더 많은 장애인에게 수혜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 "2007년 7월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래 임금은 연차와 관계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면서 "이왕 시작한 좋은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라는 시각보다 '제도를 통해 직업을 얻은 직업인'으로 인식돼 임금 인상에 대한 기준도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잊지 않았다. G

글·박근희 기자 / 사진·장은주 기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생산적이고 복지적인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 2007년 7월 4천9백90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수혜자가 1만3백명으로 늘었다. 그 중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시·도 본청 등에 장애인을 1인씩 배치해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에는 3천5백명에게 제공됐다.

관련 사업 총괄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며 수행과 교육 연계 지원은 한국장애인개발원(www.koddi.or.kr)에서 진행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민 기자

한·중·일 3국의 장애인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한·중·일 장애인 미술교류전'은 관람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한국 1백10점, 중국 30점, 일본 46점 모두 1백86점으로 작품 수도 많았지만 동양화, 서양화, 서예, 공예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놀라게 했다.

'2011 한·중·일 장애인 미술교류전'

예술의 힘으로 장애 넘어 희망을 그렸다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의 장애인들이 미술교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4월 13~17일 개최된 '2011 한·중·일 장애인 미술교류전'은 3국 최초로 국내에서 열렸다. 전시 첫날에는 각계 인사와 3국의 작가들이 참석해 문화화합을 도모했다.

지난 4월 13일,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제1전시실에서 '2011 한·중·일 장애인 미술교류전'이 개막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한·중·일 장애인 미술작가와 관계자 등 약 1백명이 참석해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미술교류전은 한국장애인미술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중국장애인연합회, 일본채리티협회 등이 주관했다.

개막식에 이어 열린 전시회도 호평을 받았다. 한·중·일 3국의 장애인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에는 수준 높은 작품이 많았다. 한국 1백10점, 중국 30점, 일본 46점 모두 1백86점으로 작품 수도 많았지만 동양화, 서양화, 서예, 공예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놀라게 했다.

이번 교류전은 4월 13~17일 5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데 이어, 5월 23~27일에는 중국 상하이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일본은 지진피해로 인해 미정이다.

올해 처음 참가한 일본은 눈에 띄는 작품들이 많았다. 그중 시각·청각·언어의 삼중 장애를 겪는 일본 장애인 작가가 그린 서예 작품이 매우 인상적이다. 작품 〈품(品)〉은 장애를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생명력 있는 필체가 돋보였다.

일본 작가 혼마 치호(다운증후군)씨는 이날 개막식에 직접 참석했다. 그의 이번 전시작 〈월하미인과 달〉은 모자이크 작품의 밑그림이다.

그는 "해외에서 작품발표가 처음이라 기대된다"며 "원래 보석원석을 깎아 붙여 작품을 만드는데 완성작은 너무 무거워서 이번 전시회에 가져오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함께 온 어머니 혼마 준코씨는 "한국에 처음 왔는데 문화가 정말 아름답다"며 "한글로 쓴 서예를 보면서 감탄했고 성대한 개막식도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도쿄에서 온 이들은 "오기 직전에도 지진이 또 있었지만 어둠 속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방문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일본 작가 구와노 메구미(지적장애)씨도 지진 피해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석했다. 그는 "지진 피해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지 못해 아쉽다"며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본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한편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다"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일본 구보 다카히로(자폐증) 작가는 "해외전시는 처음인데, 최선을 다해 그린 그림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사진은 구보씨가 자신의 작품 〈호화스런 호텔〉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모습.

관람객들, 수준 높은 몇몇 작품엔 깜짝 놀라

그의 전시작 〈모모타로와 만나기 전의 꿩〉은 일본 전래동화 〈모모타로〉에 나오는 꿩을 그린 작품으로 자신이 인형극단 단원으로 꿩 역할을 했던 경험을 살려 그렸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초대작가로 석창우 화백이 참석했다. 그는 1988년 전기 감전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단단한 갈고리를 이용해 그림을 그린다. 누드화, 스포츠선수의 모습을 담은 수묵 크로키를 전문으로 하는 그의 그림은 생동감 있는 붓질이 특징이다.

석 화백은 "지난해 '한·중 장애인 미술교류전'에서 시연을 했다"며 "올해는 초대작가로 참여했는데 이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미술작품을 교류한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시회에 두명이 아이스댄싱을 추는 모습을 그린 작품 〈피겨스케이팅2〉를 선보였다.

전시 첫날 많은 사람들이 전시장을 찾았다. 지체장애인 송정아씨는 "한국 장애인 작가들의 미술작품은 많이 봤지만 다른 나라의 작품은 처음 봤다"며 "각 문화마다 특색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어서 좋고 몇몇 작품들은 정말 수준이 높아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1학년 딸과 함께 전시회에 들른 김경아 주부는 "작품이 다양하고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이라 그런지 내면의 깊이가 느껴져서 감동적이었다"며 "미술에 관심 많은 우리 딸도 잘 봤다"고 전했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중국장애인잡지사 장화용 부총편집장은 "지난해 한·중 장애인 미술교류전에도 참석했는데 올해 미술전에는 더 많은 한국장애인 예술인들이 참가해 아주 감동적이었다"며 "한·중·일 장애인들이 앞으로 더 단합해서 좋은 행사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G

글·이제남 기자

한국장애인미술협회

문화적으로 밀접한 한국, 중국, 일본은 이번 장애인 미술교류를 통해 국경을 떠나서 예술로 하나가 됐다. 사진은 한국 석창우 화백의 작품 〈피겨스케이팅2〉(왼쪽 사진)와 일본 구와노 메구미 작가의 작품 〈모모타로와 만나기 전의 꿩〉.

국립중앙도서관의 '책다모아' 사업은 개인서재 등에 잠자고 있는 책들을 소외지역 도서관에 나눠주는 도서기증 나눔운동이다. 사진은 기증된 책 보관소.

"집안에 잠자는 책 함께 나눠요"

국립중앙도서관, 개인들 대상 도서기증 나눔운동 '책다모아' 사업 펼쳐

국립중앙도서관은 미소장 자료를 확보해 국가문헌으로 영구보존하고 정보소외 지역 도서관에 재기증하는 '책다모아' 사업을 2004년부터 해오고 있다. 개인의 서재 등에서 잠자고 있는 책들을 모아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영구히 보존하고, 이미 소장된 자료는 작은도서관, 문고, 병영도서관 등 소외지역 도서관에 다시 나누어 주는 도서기증나눔운동이다.

"'책다모아' 사업은 서재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책, 마땅한 기증처를 찾지 못해 버려질 책을 국립중앙도서관이 안전하게 수집해서 독서환경이 열악한 도서관에 재기증하는 것입니다. 납본제도 시행 이전에 수집하지 못한 국가문헌도 보완하고, 사라질 지식정보자원을 재활용해서 책 나눔 문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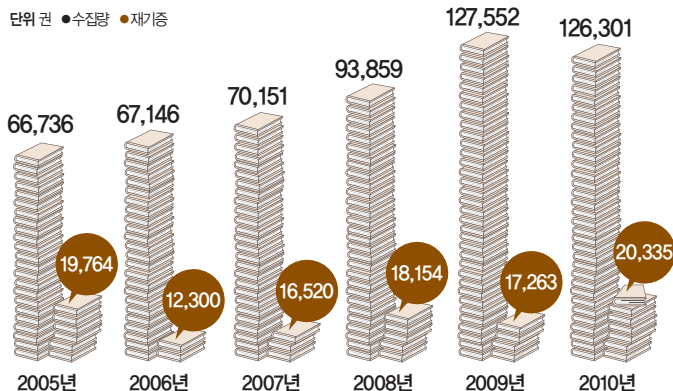
지난 4월 13일 만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기획과 김명희 과장은 '책다모아' 사업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착한 사업'이라고 했다. 2004년 국가문헌 보완을 위해 시작됐고, 2008년 2월 지식자원의 재활용과 도서나눔문화로 확대하기 위해 '책다모아'로 명칭 변경됐다.

지금까지 총 수집책 수는 55만1천7백45권, 국가문헌등록 수는 12만7백51권, 소외지역도서관 재기증 수는 10만4천3백36권이다.

2004년 국가문헌 보완 위해 처음 시작

'책다모아' 사업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해 6백32곳으로부터 12만6천3백1권을 수집해서 1만9천2백97권을 도서관 장서로 확충하고 64곳에 2만3백35권을 재기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마자렐로센터', '누리마루아동복지센터' 등에 재기증을 했다. 마자렐로센터는 13~18세 선도 대상 청소년을 수용하여 숙식, 상담, 교육을 통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다.

자료기획과 이태주 서기관은 "책을 기증하는 분들은 그 책이 어

도서 나눔 '책다모아'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직원들. 왼쪽부터 이혜용 사서, 김명희 자료기획과장, 이태주 서기관.

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그 사용처를 상세하게 알려준다. 그래야만 신뢰를 확보하고 기증자들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4월 23일 국립중앙도서관 로비서 행사 가져

오는 4월 23일 '책의 날'에는 여러 가지 행사도 개최한다. 대표적인 것은 '작가 친필서명 시집 전시회'(4월 23일~6월 3일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로비)다. 한국시인협회 회원의 친필서명 시집을 기증받아 전시하는 것이다. 전시명은 '도서관, 그리고 시, 시집전'으로 2백95명의 시인이 1천1백20권을 기증했다.

'도서관, 그리고 시, 시집' 전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파트 1은 '시가 있는 공간'이다. 시의 창작과 감상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는 왜 존재하는가?', 현대시의 형성과정을 담은 '한국현대시의 뿌리를 찾아서', 시에 관한 명언을 모은 '시를 말하다'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 2는 '시인이 있는 공간'이다. 기증을 위한 한국시인협회의 역할을 알려주는 '시인의 길', 도서관을 통한 시·시인·독자와의 교류를 이야기하는 '시인, 세상 속으로', 기증작 중 수상작들을 전시하는 '아름다운 발자취'로 이뤄져 있다.

스페셜 파트는 '시를 추억하며' '시 갤러리' '시, 집을 짓다' '시인의 이름으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4월 23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서관으로 책다모아' 나눔행사를 연다. 이날 '시 낭송', '배우와 함께 읽는 소설'이 이어진다. 배우 김지영, 김연진 등이 박완서 작가의 소설 〈그리움을 위하여〉를 읽어 준다. G

글·서일호 기자 / 사진·장은주 기자

책다모아' 기증 Q&A

우편, 택배, 직접 방문 등 다양

Q 기증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경우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l.go.kr)에서 '기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절차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면 됩니다. 담당자가 자료를 수령한 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증자별 현황에 기증내용을 게시하며 인수증을 송부합니다. 자세한 기증 상담은 02-590-0700(교환 5)으로 하면 됩니다.

Q 무엇이든 기증할 수 있는지요?

A 기증자료는 일반도서, 학술도서,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비도서 자료 등 대부분 가능합니다. 단, 개인복사물, 팸플릿 등의 낱장자료는 기증받지 않습니다.

Q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기증자료를 어떻게 수령하나요?

A 우편, 택배, 직접 방문 등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Q 기증자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A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로 등록하며, 중복자료는 자료를 필요로 하는 도서관이나 단체에 재기증하거나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Q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책을 기증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 국립중앙도서관은 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아 수집한 도서를 다른 도서관 등에 기증하고 있습니다. 재기증 대상은 소외지역 작은 도서관, 병영도서관 등입니다. 재기증을 원하는 도서관은 전화, e메일(donation@mail.nl.go.kr)로 신청하면 됩니다.

“인맥이 넓어져 언제든 세계와 소통해요”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한미학생회의는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 간의 ‘글로벌 휴먼 네트워크(국제 인맥)’ 형성을 위한 국제 행사다. 참가학생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발로 뛰며 만들어 가는 한미학생회의 한국집행위원회장인 장진구씨를 만났다. 그는 한미학생회의를 통해 세계와 통하고 세상을 꿈꾼다.

휴먼 네트워크 마스터인 장진구는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3학년(휴학 중)
한국유네스코 학생회 회장(2007년)
한미학생회의 제4회 한국 집행위원회장(2010년 8월~)
미국계 전략 컨설팅회사 ADL 인턴(2011년 3월~)

“한미학생회의(Korea America Student Conference)는 제게 새로운 ‘눈을 뜨게(eye-opening)’ 하는 경험이었어요. 저의 인적 네트워크를 세계로 확장시켜 주었죠. 세계 곳곳의 친구들과 인터넷을 통해 지리적 제약을 느끼지 않고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재미있고 신선해요.”

지난해 8월부터 한미학생회의 제4회 한국집행위원회장을 맡고 있는 장진구(23·연세대 응용통계학과 3학년 휴학 중)씨. 지난 2008년 시작된 한미학생회의는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비영리 교육기관인 국제학생회의(ISC·International Student Conferences)에서 주최하는 국제 학생교류 행사다.

오는 7월 3~31일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4회 한미학생회의 준비에 한창 바쁜 그가 한미학생회의라는 국제학생교류를 통해 겪은 경험을 나누고, 국제학생교류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한미학생회의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요.

“한미학생회의는 지난 2007년 한·미 정상회담 당시 양국 정상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고안된 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여름 양국에서 번갈아 열리는 이 행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선발된 각각 25명의 학생들이 약 4주간 동고동락하며 양국간 이슈에 대한 강의를 듣고, 최근 주요 시사에 대해 토론 및 발표를 합니다. 진정한 ‘Global Experience(국제경험)’로서 폭넓은 사고와 경쟁력을 기르고 인맥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올해 열리는 한미학생회의를 위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한미학생회의는 단순히 참가에 그치는 회의가 아닙니다. 저의 경우 지난해 한미학생회의에 참가했고, 투표를 통해 집행위원회장에 뽑혔습니다.

이때 투표를 통해 양국 각각 5명씩(집행위원회장 포함) 선발됐고, 이 집행위원들이 차기회의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양국의 집행위원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참가자 모집과 선발, 회의 프로그램 구성, 강사와 장소 섭외,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홍보까지 다 맡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가자 선발을 마쳤고, 회의 프로그램의

틀을 다듬는 중입니다."

한미학생회의를 통해 어떤 사람들을 만났나요.

"미국 학생들의 경우 아시아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아시아 언어나 국제정치학, 국제관계학, 외교와 통상 분야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였어요.

한국 친구들은 1, 2회 회의의 경우 국제학이나 영어영문학, 정치외교학 등 전공자가 많았다는데, 제가 참가한 지난해부터 역사와 예술, 수의학까지 참가 학생들의 전공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세대가 여러 분야에서 글로벌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지난해 7월 미국에서 열린 제3회 한미학생회의 참가자들이 워싱턴DC 국무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회의는 한국에서 열린다.

지난해 한미학생회의에 참가할 때 어떤 것을 보고 느꼈나요.

"한 미국 학생이 말한 'Love what you want to do(네가 원하는 것을 사랑하라)'라는 구절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학생은 명성과 부를 가져다주는 직업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 그것을 직업으로 삼으려고 했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친구들을 보니 새로웠어요. 그 이후 깨달은 것이 '언제든지 대체가 가능한 사람이 되지 말고, 자신의 적성에 맞고 나의 존재감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을 찾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제게 큰 자산이 된 게 친구들이에요.

즉 '휴먼 네트워크(Human Network)'가 한미학생회의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이에요. 한국유네스코 학생회 회장을 맡아 전국에 인맥이 있었는데, 한미학생회의는 저의 인맥을 세계로 확대해 주는 기회였어요."

그동안 회의 준비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이 행사의 역사가 짧고 홍보가 되지 않아 예산을 학생들의 참가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회의 계획과 진행의 90퍼센트 이상이 집행위원회가 중심이 돼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인력, 예산과 시간적인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향후 이러한 인적 교류 프로그램들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통합된 형태의 조직이 만들어져 능력 있고 가능성이 큰 인재들이 국내에서도 네트워크를 만들어 이 회의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미국의 경우 기부 문화의 발달로 교수님들이 무료로 강의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의 참가비 부담이 덜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 이런 점들이 부족해 한 학기 등록금에 가까운 참가비를 참가 학생들 대부분 개인적으로 마련합니다. 집행위원회에서 정부기관이나 기업에 홍보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국제학생교류와 관련해 정부나 우리 사회에 제안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저는 한미학생회의라는 프로그램이 요즘 어학연수나 해외봉사보다 효과적이고 높은 질의 '글로벌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갈수록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에도 참가 학생들이 전문적 지식을 쌓고 국제적인 환경에서 경력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계획됐습니다.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물질적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저희 단체에 관심을 보여주고 홍보지원을 해주신다면 재정적 어려움을 한결 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다면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글로벌 경험 및 네트워크'의 중심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만났을 땐 평범한 대학생인 듯했다. 하지만 얘기를 듣다 보니 한미학생회의 준비를 통해 평범하지 않은 경험과 생각, 그리고 포부를 갖고 G20세대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장진구 학생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G

글 · 민지영(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아이돌 틈새서 7080음악이 뜬다

'세시봉과 친구들' 인기에 '나가수' 열풍 합쳐져 젊은 층들도 환호

요즘 가요계는 7080음악이 강세다. 7080음악은 뛰어난 가창력에 의해 그 인간적이고 낭만적인 노랫말이 분명하게 들린다. 음악관계자들은 바로 이 부분이 젊은층까지 움직였을 것으로 분석한다.

조선DB

1960~70년대 청년 문화의 산실이었던 통기타 라이브클럽 '세시봉' 주역들이 최근 20~30대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3월 4일 저녁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세시봉 콘서트에서 윤형주, 송창식, 김세환이 이야기와 노래를 곁들인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걸 그룹이 주축이었던 아이돌 가수의 인기는 작년까지만 해도 난공불락으로 보였다. 인터넷, 전파, 행사, 다운로딩 차트 등 음악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아이돌 가수들이 석권했다. 40대 남자들도 모이면 걸 그룹 품평회를 할 정도였다.

지난해 한 가요매니저는 "아이돌 가수를 찾으려 전국의 중·고교를 뒤지고 있다. 처음에 잠깐일 줄 알았는데 당장 대세이고 앞으로도 오래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모두 다 그렇게 아이돌 음악이 상당기간을 지배할 것으로 여겼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여전히 아이돌 파워가 젊은 층을 장악하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주춤한 듯한 양상도 보인다.

먼저 그들의 전유물이 되다시피 한 다운로딩 차트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소라, 김건모, 김범수, 윤도현, 이은미 등 아이돌과는 거리가 먼 중견가수들의 노래에 대중들이 갑자기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운로딩 차트에 중견가수들 상위권 올라

TV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가 만들어 낸 변화의 바람이다. 그게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다운로딩 차트 사상 중견가수들의 노래가 상위권을 점령하기는 처음이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의 경우 2005년부터 라디오 프로그램 애청곡이긴 했지만, 〈나는 가수다〉에 소개되면서 전국적 히트곡이 됐다. MBC 라디오 한재희 프로듀서는 "좋은 노래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미 검증된 가수를 서바이벌 게임으로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비판이 집중되고 있지만, 〈나는 가수다〉를 통해 아이돌 댄스음악에 가려 그동안 빛을 보지 못한 좋은 노래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면서 가창력에 대한 얘기가 부쩍 늘어났다.

한 주부는 "그동안 텔레비전 가요 프로그램은 쳐다보기도 싫었다. 댄스만 있고 노래는 없지 않았는가. 〈위대한 탄생〉이나 〈나는 가수다〉를 통해 제대로 된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좋다"면서 "이제 조금 가요 프로그램 볼 맛이 난다"고 털어놓았다. 비로소 가수의 기본인 가창력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피어오른 아이돌 그룹의 강점이 댄스라고 한다면 이들에 의해 소외된 과거의 가수들, 이른바 7080가수의 무기는 가창력이다. 그 시대에는 노래를 못하면 가수로서 존재할 수 없었다. 〈나는 가수다〉의 출연가수들을 7080세대로 묶을 수는 없지만 이들과 함께 가창력이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최근 7080음악이 다시금 힘을 받고 있다. 아이돌 그룹의 기세가 약간은 주춤한 이유가 7080음악의 부상 때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발군의 노래실력에 경이와 경외 동시에

결정적인 것은 '세시봉과 친구들' 열풍이다. 조영남,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 그리고 이장희 등 1960년대 서울 무교동에서 성업했던 음악감상실 '세시봉'에서 활약했던 옛날의 가수들 음악이 TV콘서트로 재조명되어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것이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60대 중반의 큰아버지 아니면 작은할아버지라고 할 어르신 음악에 그들의 존재를 알 턱이 없는 새파란 젊은이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점이다.

한 여대생은 "우연히 TV로 보게 되었는데 그 느낌이 묘했다.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우리처럼 격의 없이 즐겁게 얘기하는 것도 신기했지만 막상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들 잘하시는 것이었다. 처음 듣는 음악이었는데 가슴에 와 닿았다"고 고백했다.

뛰어난 가창력에 경이와 경외를 동시에 느꼈다고 할까. 세시봉을 계기로 요즘 음악에서 7080의 옛 음악을 찾아 듣는 쪽으로 돌아선 젊은이들도 꽤 늘었다고 한다.

세시봉 음악, 즉 통기타 음악이 나이 든 세대에게 어필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지나간 시절의 음악을 모처럼 다시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반가웠겠는가. 하지만 평소 옛날 음악을 '구린' 음악으로 여겨 온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세시봉 음악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는 점은 가히 충격적이다.

지금의 10~20대들은 아이돌 음악에 열광하지만 솔직히 그것이

MBC 〈나는 가수다〉를 통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김범수.

소비를 겨냥한 공산품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다만 미디어를 통해 그것 외에 다른 스타일의 음악을 접하지 못했을 뿐이다. 어찌 보면 그들도 나름의 소외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막상 TV에서 세시봉 콘서트를 보니 비록 흘러간 것이라도 그 음악이 순수하고 진솔하며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어떤 무게감이 있음을 느낀 것이다.

요즘의 아이돌 음악은 격한 댄스리듬이 주도하면서 노랫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 젊은 음악이 어른들에게 정을 못 주는 이유는 가사 전달력과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도 있다. 이에 반해 7080음악은 뛰어난 가창력에 의해 그 인간적이고 낭만적인 노랫말이 분명하게 들린다. 음악관계자들은 바로 이 부분이 젊은 층을 움직였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아이돌 편향 벗어나 다양성 향한 구조조정

크게 보면 '세시봉과 친구들'을 비롯한 7080세대 문화의 부활은 다양성을 향한 구조조정의 흐름일 것이다.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그리하여 일부 세대만 반응하는 왜곡된 음악현실에 대한 일종의 반감이 '좋은 노래', '가창력', '순수'에 대한 요구와 함께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은 여러 음악스타일이 고루 환영 받는 쪽으로 가고 있다.

우리 주류 양하다면 당연히 음악도 다양하고 어른과 젊은 세대의 음악이 고루 시장에 분포되어야 한다는 경고로 볼 수도 있다. 너무도 당연한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 잊고 살았다. 비록 한때로 그칠지라도 우리 음악계는 그러한 한때가 자주 나타나야 한다. G

글 · 임진모 (대중음악평론가)

가로수길을 걸으며 호젓한 여유로움과 명상에 잠길 수 있는 전남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왼쪽 사진). '사색의 길'이라 명명됐다. 서울 4대문, 4소문, 남산, 인왕산, 북악산을 따라 이어진 서울성곽 길에서는 선조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야기로 만날 수 있다 (오른쪽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10곳 선정

걷다보면 길섶 들풀이 말을 건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는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역사 자원을 특성 있는 스토리로 엮어 국내외 탐방객들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걷기 중심의 길이다. '아차산 고구려 역사길' 등의 시대별 역사길이 있는가 하면 '두물머리길'과 같은 사랑과 낭만과 사색의 테마길이 있다. 길 위에서 역사를 만날 수 있는가 하면 조상들의 삶을 만날 수도 있다. 그 길을 따라 난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며 사색의 시간을 가져 보자.

길이 있고 이야기가 있다. 길 위에서 역사를 만나고 사랑과 낭만을 느낀다. 2009년, 2010년에 이어 올해도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10곳이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마다 선정하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는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역사 자원을 특성 있는 스토리로 엮어 국내외 탐방객들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걷기 중심의 길이다. 2009년에는 소백산 자락길, 강화나들길 등 7곳이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땅끝길, 대관령 너머길 등 10곳이 선정됐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10곳은 ▲시대별 역사길 ▲삼남대로 옛길 ▲풍경이 있는 가람(강의 옛이름)길 ▲사랑과 낭만과 사색의 테마길 등 네 가지 주제로 나뉜다.

시대별 역사길에는 길을 통해 우리 역사의 발자취를 더듬고 선조들의 지혜를 배운다는 취지에서 '서울 성곽길', '아차산 고구려 역사길', '부여 사비길'이 뽑혔다. 일제 수탈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교역의 도시 군산의 근대 문화유산을 둘러볼 수 있는 '금강하구길'도 시대별 역사길로 분류됐다.

전남 해남에서 서울까지 4백10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삼남대로 옛길로는 옛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전남 장성에서 전북 정읍 구간의 '갈재길'이 선정됐고 '동강길'과 '섬진강길'은 풍경이 있는 가람길로 주제를 묶었다.

사랑과 낭만과 사색의 테마길에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길'이 남녀가 만나 인연이 맺어지는 사랑의 테마길로, 낙동강 상류의 풍광을 배경으로 철도를 따라 걷는 '승부역 가는 길'은 추억과 낭만의 테마길로 주제가 주어졌다.

담양 대나무 숲길인 죽녹원, 관방제림, 아름다운 거리 숲인 메타세쿼이아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담양 수목길'은 사색 테마길로 선정됐다.

탐방로 선정과정에는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현장답사를 통해 노선을 정했다. 문화부는 시·도 및 민간전문가들로부터 56개 사업지를 추천받은 후 이 가운데 16개 코스를 1차로 선정했다.

여행작가, 탐방로 기획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과 문화부 관계자가 참여한 1차 사업 선정지 현장답사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이루어졌다. 현장답사 과정에서 답사단 외에도 해당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길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을 통해 소통의 길, 치유의 길, 인생을 키우는 길, 재미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 청소년 여행문화학교 운영, 탐방로 보물찾기, 팸투어 등 다양한 걷기 이벤트를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홍성운 사무관은 "이번에 선정된 탐방로를 주관하는 지자체 및 주관단체에 안내판 설치, 스토리텔링, 홍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것"이라며 "탐방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탐방로를 찾고 즐길 수 있게 하고 걷는 길 문화콘텐츠 지도도 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제작될 지도는 단순한 관광지도 차원을 넘어 지역자원 해설, 걷기 여행에서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및 이야깃거리가 담긴 명실상부한 문화 및 교육콘텐츠 지도로 제작될 예정이다. G

글·김성동 기자

2011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10곳

테마		탐방로명	지역	길의 특징
시대별 역사길	삼국	아차산 고구려 역사길 (13.3km)	서울 광진구 (강동구·송파구 연계)	남한에 있는 보기 드문 고구려 유적지인 아차산 보루성과 고구려와 대치하던 한성 백제의 풍납토성, 몽촌토성을 연계하는 역사 문화형 탐방로
		사비길 (10km)	충남 부여	백제 사비도성이었던 부여시가지를 관통하는 길로 백제왕궁터, 낙화암과 고란사가 있는 부소산성, 궁남지, 정림사지, 구드래일원 등 현존하는 백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백제 도보 역사문화 길
	조선	서울 성곽길 (18.6km)	서울 종로구·성북구, 서대문구	서울 4대문, 4소문, 남산, 인왕산, 북안산을 따라 이어진 옛 성곽을 탐방할 수 있는 길로 다양한 역사·생태자원과 선조들의 지혜와 사상을 엿볼 수 있어 교육 공간으로도 좋은 길
	근대	금강 하구길 (31.9km)	전북 군산	금강변의 옛 포구와 일제 수탈의 근대 역사문화 자원(군산항, 구 군산세관, 구 조선은행, 일본인 가옥 등), 채만식의 소설 〈탁류〉 배경지를 둘러보는 길
삼남대로 옛길		갈재길 (9.3km)	전남 장성, 전북 정읍	삼남대로(전남 해남~서울, 410km) 중에서 옛길의 흔적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곳으로 전남과 전북을 넘기 위하여 반드시 지나야 하던 소통의 길로서의 상징성이 있는 길
풍경이 있는 가람길		섬진강길 (99km)	전북 임실·순창, 전남 곡성·구례	섬진강변의 갈대와 억새, 정자 등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강변에 얽힌 설화, 문학마을 길, 추억의 기찻길, 벚꽃나무 길과 연계하여 다채로운 이야기와 풍광이 있는 길
		동강길 (56km)	강원 정선·영월	동강변의 느티나무, 섶다리, 뼝대, 나리소 등 동강의 비경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길로 계절별로 할미꽃, 철쭉, 아리랑, 아우라지 뗏목, 단종, 김삿갓 관련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길
사랑과 낭만, 사색의 테마길		두물머리길 (28km)	경기 양평·남양주·구리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 흐르며 강과 강, 사람과 사람이 만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를 만들어 내는 길로 느티나무, 강변돌담, 철로, 나루 등이 어우러져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각광받고 있는 사랑의 테마길 (연인의 길)
		승부역 가는 길 (12km)	경북 봉화	낙동강 상류의 아름다운 풍경을 따라 나란히 놓인 철도와 같이 가는 노선으로 추억과 낭만이 있는 길
		담양 수목길 (8.1km)	전남 담양	담양 천연대나무 숲길인 죽녹원, 보호수가 늘어선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길 등 숲길과 가로수 길을 걸으며 호젓한 여유로움과 명상에 잠길 수 있는 사색의 길

장수왕과 북위 풍태후

풍태후, 정적엔 칼… 고구려엔 미소

북위의 황제 헌문제와 풍태후는 장수왕에게 딸을 후궁으로 보내라며 압박했다. 풍태후는 대외 문제에서 겉으로는 헌문제와 보조를 맞추는 듯 했지만, 안으로는 헌문제와 치열한 권력투쟁을 벌였다. 풍태후는 헌문제의 후궁 문제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갔고, 마침내 기회가 되자 헌문제를 독살했다. 풍태후의 장수왕에 대한 혼사 요구는 정적인 헌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성동격서(聲東擊西)' 작전이었다.

장수왕에게 북위의 풍태후는 껄끄러운 존재였지만 정권을 장악한 풍태후는 고구려와 우호관계를 유지했다.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풍태후는 고구려 장수왕에게 북위 황제의 후궁으로 공주를 달라고 요구했다. 일종의 외압이었다. 북위와의 통혼은 고구려의 내정과 지형을 노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과거 북량(北凉)은 북위와 통혼을 한 바 있다. 북량 왕 저거목건(沮渠牧犍)의 누이가 북위 황실에 시집을 갔다. 북량은 439년 북위에게 멸망했다.

장수왕은 35년 전(438년) 자신이 살해한 풍홍의 손녀로부터 혼사를 강요받은 것이다. 가해자인 장수왕의 입장에서 확실히 풍태후는 거북한 상대였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은 혼인 당사자인 헌문제도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헌문제와 풍태후는 북위 궁정 내부에서 암투를 벌이는 정적이었다. 막후 실력자로서 풍태후가 등장한 시기는 465년 문성제가 죽고 헌문제가 즉위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 헌문제는 12세에 불과했다. 정치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나이였다. 당연히 권력을 행사할 위정자가 필요했다. 이때 그 지위에 오른 자가 거기대장군 을혼(乙渾)이다. 을혼은 덕망 있는 관료를 독살하는 등 권력을 마구 휘둘렀다. 그러자 풍태후가 나섰다. 그녀는 악화될 대로 악화된 궁정 내 여론을 이용해 466년 을혼을 주살했다.

장수왕에게 통혼을 강요한 풍태후

풍태후는 자연스럽게 정치일선에 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467년 효문제가 태어나자 풍태후는 효문제를 양육한다는 명분으로 후궁으로 물러나 앉았고, 정권은 14세의 헌문제에게 환원됐다. 헌문제와 측근들의 압박 때문이었다. 468년 풍태후의 반대파 인물들인 자추(子推)와 이혜(李惠), 그리고 이흔(李訢)이 정치적으로 부상했다.

태후가 된 후 대신 을혼과 권력투쟁을 벌여야 했고, 헌문제가 나이가 들자 정적이 되었다.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그녀의 내면은 황폐화되었다. 사막에도 잠시 비가 내린다. 그리고 꽃이 핀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20대 중반의 과부 풍태후는 한 남자를 알게 된다. 이혁(李奕)이라는 잘생긴 귀족 청년이었다.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자 풍태후는 여자가 되었다. 헌문제는 그녀를 그렇게 여자로 살게 내버려둬야 했다.

그러나 그녀의 연인 이혁은 470년 10월 헌문제에 의해 주살된다. 헌문제는 풍태후의 소중한 연인 이혁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방심과 경솔함도 함께 죽였다. 풍태후가 어두운 정치가로 변신한 것은 바로 이때부터다. 사랑한 남자 이혁의 죽음은 그녀의 영혼을 억누르고 있었다.

1년 후인 471년 8월경 북위 조정에서는 헌문제의 양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헌문제의 퇴위는 풍태후의 압박 때문이었다. 그때 헌문제의 나이는 불과 18세였다. 풍태후의 품에서 효문제가 자라나고 있었지만, 태상황 헌문제는 너무나 젊었다. 게다가 퇴위했다고는 하지만 그의 측근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었고, 측근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정벌과 순행활동을 했다. 헌문제의 퇴위를 그의 권력 상실로 직결시킬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당시 헌문제와 풍태후는 파당을 이루고 대결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존이 불가능한 정적 사이였던 헌문제와 풍태후가 고구려 장수왕에 대해서만은 같은 목소리를 냈다. 헌문제는 풍태후의 1차 임조청정(臨朝聽政 : 조정에 나와 정사를 들음)을 종료시키는 데 관여했고, 그녀의 연인을 죽였다. 이에 지지 않고 풍태후는 헌문제를 황제의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두 사람은 반목하던 정치적 라이벌이었다. 따라서 장수왕에 대한 풍태후의 혼사 요구는 가식적인 친절로 보였다.

그러나 백제의 청병은 34년 전 풍홍 일족이 고구려에서 겪은 비극을 떠올리게 했다. 그것은 고구려 장수왕에 대한 풍태후의 사적(私的) 원한을 새삼 알리는 계기가 됐고, 풍태후가 혼사를 빌미로 고구려를 압박하는 것을 심정적으로 이해하게 했다. 나아가 장수왕이 헌문제의 고구려 영내 통과 요청을 단호히 거절한 사건은 풍태후의 사적 원한을 명분으로 포장시켰다. 헌문제를 위해 풍태후가 직접 나선 고구려와의 혼사 문제는 북위 조정에서 화제가 되기에 충분했고, 그것이 장기화하면서 그녀에 대한 의심도 엷어져갔다.

475년 풍태후는 다시 정준(程駿)을 필두로 하는 북위의 사절단을 고구려에 파견했다. 해를 넘기면서까지 장수왕에게 통혼을 강청(強請)한 것이다. 마침내 진노한 장수왕이 북위 사절에게 주던 술과 음식을 단절했다.

문제 해결의 단초는 고구려가 아니라 북위에서 열렸다. 태상황 헌문제가 476년 6월 23세의 젊은 나이에 급사(急死)했다. 풍태후는 헌문제의 후궁에 비빈(妃嬪)의 결원을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태상황 헌문제의 사생활 공간에 관여하고 있었던 풍태후는 고구려와 혼사 문제를 놓고 시간을 끌면서 후궁의 실무적 운영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갔다. 그러다 마침내 476년 6월 헌문제는 풍태후에게 독살당한다.

북위의 풍태후는 대외적으로 헌문제와 보조를 맞추는 듯했지만 이는 대내적으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술수였다. 마침내 헌문제를 독살시키고 권력을 장악한 풍태후는 고구려에 대해서는 관대했다. 각국 사신이 모인 자리에서 고구려 사신을 우대하는 한편, 두 나라의 교역량도 두 배로 늘어났다.

풍태후가 북위 궁정의 암투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됐다. 고구려와 외교적 마찰이 계속되는 사이에 풍태후는 헌문제를 독살하기 위한 음모를 진행하고 있었다. 풍태후의 장수왕에 대한 혼사 요구와 헌문제의 죽음은 '성동격서(聲東擊西)'의 형세였다. 한비자(韓非子)의 표현 그대로 '귀인은 겉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 척하나 실제로는 다른 일을 꾸미고 있다'는 말을 실현시킨 것이다.

헌문제 독살로 정권을 장악한 풍태후

권력을 장악한 후 풍태후는 고구려에 대해서는 관대했지만 북위 내부의 정적들에 대해서는 가혹했다. 476년 이후 고구려와 북위의 교역량이 두 배로 늘어났다. 477년 물길(勿吉) 사신이 북위 조정에 와서 백제와 힘을 합쳐 고구려를 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풍태후는 "세 나라는 화목하게 지내라!" 했다. 그뿐만 아니라 489년 각국 사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구려의 사신을 남조의 남제(南齊)의 사신과 나란히 앉게 했다.

반면 헌문제가 신뢰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에 대한 벌을 받았다. 476년 11월 자추는 좌천돼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풍태후의 정인 이혁의 죄목을 헌문제에게 상주한 이흔은 477년 2월 적국인 송(宋)과 내통했다는 외반죄(外叛罪)로 주살됐다. 헌문제의 장인 이혜(李惠)도 478년 12월에 같은 죄목으로 처형됐다. 물론 이들의 가족과 수족들도 무사하지 못했다. G

글 · 서영교 (중원대 박물관장)

| 글 싣는 순서 |

공무원 되는 길… 도전하세요

5월 12일 코엑스에서 '공직채용박람회'

일러스트·유현호

'2011 공직채용박람회'가 오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공직 채용정보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최초의 박람회로, 4월 14일 공직채용박람회 인터넷 홈페이지(www.gogobs.go.kr)가 개설됐다.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등 헌법기관, 그리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망라한 60여개 정부기관이 동시에 참여해 개별 기관별 부스를 설치하고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공직 채용정보뿐 아니라 공직과 공무원의 업무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직진출 희망자들의 공무원시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모두 3가지 섹션으로 구성된다.

'공직 채용안내' 섹션에서는 경찰·소방·군인(부사관)·군무원, 교사 등 특정직 공무원을 비롯해 모든 종류의 공무원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 일괄채용 방식으로 진행되는 5급 특채 관련 정보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또, 장애인·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정책과 채용정보 제공 부스도 별도로 마련되고, 지방대학 졸업(예정)자 및 기능인재 채용 등과 관련된 정보도 제공된다.

'공직과 공무원에 대한 이해' 섹션은 박람회 참가자들이 공직이 어떤 곳이며, 공무원이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은 많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흥미를 느껴서라기보다는 직업적 안정성 때문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섹션을 마련했다.

'맞춤형 채용 서비스' 섹션에서는 참가자가 스스로 공직에 적합한지 진단해보고, 면접 등 공무원시험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체험프로그램·적성검사 등 다양한 행사도

먼저, 공직에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역량을 갖추었는지 '공직 적성검사'를 통해 자가진단 해보고, 검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의 피드백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민간경력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5급 공채 1차 시험인 '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 : 공직적성검사)'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하는 코너도 운영된다.

이외에도 전반적인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접 시 필요한 옷차림, 자신감 있는 모습 만들기 등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 특강 ▲최근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선배의 공직 경험, 합격 노하우 등을 들을 수 있는 1:1 멘토링 코너 등도 마련된다. G

글·박경아 기자

문의·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 02-2100-3822 www.gogobs.go.kr

상춘별곡(傷春別曲)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상춘객 여러분,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내가 가져갑니다.

49편의 시를 통해 마음의 상처 봄눈 녹듯

위로

이시형 지음
생각속의집 펴냄 · 1만2천8백원

요즘과 같이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빠른 스피드가 강조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반대의 현상들이 사회 일각에서 공감을 얻으며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슬로 라이프' 스타일로의 변화이다.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천천히 인생을 음미하면서 느긋하면서도 소박한 삶을 꿈꾸어 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야말로 느리게 천천히 읽어 나가야 저자의 집필 의도를 꿰뚫을 수 있다. 즉 '슬로 리딩' 하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다. 우리 시대의 원로 가운데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최근의 핫이슈나 트렌드를 주도하는 어엿한 현역작가인 이시형 박사의 신간 도서 〈위로〉가 바로 그 책이다.

저자는 상처 난 마음을 어루만지고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두뇌의 여러 신경회로 중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의 부제로 잡힌 '세로토닌 마음처방전'이라는 글처럼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고, 쉽게 지치거나 삶에의 뜻을 굽히지 않게 힘을 북돋워주는 일종의 마음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다.

고민과 절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위로'의 힘이다. 이 책은 그 '위로'의 힘을 시를 통해 풀어나간다. 49개의 상황을 설정한 뒤 49편의 시를 들려주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위로'는 참으로 따뜻한 단어이다. 살다 보면 주위에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크고 작은 고민과 절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때 비록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공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위로'의 힘이다. 이 책은 바로 그 '위로'의 힘을 시(詩)를 통해 풀어나가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일상 속에서', '연애와 결혼', '가족의 울타리', '직장생활', '대인관계' 등 5개의 카테고리로 풀어나가고 있다. 49개의 상황을 설정한 뒤 49편의 시를 들려주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형식이다.

저자는 '위로란 마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세상에 내 편이 한 명도 없다고, 답답한 속을 털어 놓을 친구 하나 없다고 서운해하지 말라'고 한다. 이는 당신이 먼저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고 진심으로 그의 속내를 들어주면 그 사람이 분명히 당신의 친구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처럼 위로란 일방적으로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아닌 서로가 나누는 마음이다. 그래서 위로의 힘은 강하다.

이 책을 통해 삶을 조용히 응시할 수 있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살아가는 데 지친 스스로를 위로하며 쉽게 포기하지 않으며 따뜻한 마음을 열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따뜻한 위로의 시들을 천천히 읊조리듯 낭송해 보기를 바란다.

글 · 이수경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일러스트 · 남동윤

달래고 보듬어주세요…

글과 그림 · 최영순

상대를 용서하는 것도 화풀이의 한 방법이다. – 틱낫한

박칼린의 노래도 카리스마?

콘서트 **서울재즈페스티벌-박칼린의 '디스 이즈 칼린'**

서울재즈페스티벌 2011(5월 9~12일) 중 하나의 콘서트인 〈디스 이즈 칼린(THIS IS KOLLEEN)〉. 국내 뮤지컬 음악감독 1호, 따뜻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박칼린이 서울재즈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박칼린은 1995년 뮤지컬 〈명성황후〉 음악감독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후 〈오페라의 유령〉, 〈시카고〉, 〈렌트〉, 〈헤어스프레이〉, 〈미스 사이공〉, 〈아이다〉 등의 음악감독 및 연출가로 활동했다.

한국 뮤지컬계를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한 박칼린은, 자신의 뮤지컬 인생을 반추한 에세이 〈그냥〉 출간, 컴필레이션 앨범 출시 등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칼린은 이번 공연에서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매너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재림, 장재인, 노지현, 리드미스트 그리고 실력파 뮤지컬 배우들이 함께하는 무대도 만날 수 있다.

지금까지 화제가 되었던 무대 뒤에서의 카리스마 넘치는 그녀 모습을 벗어나, 무대 위에서의 아티스트로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매력과 열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준다.

일시 2011년 5월 9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R석 13만2천원 S석 11만원 A석 8만8천원 B석 6만6천원 C석 5만5천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563-0595

조선DB

서울재즈페스티벌 첫 주자로 콘서트를 여는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

가수 박정현

박정현 콘서트 '조금 더 가까이' 공연을 보고 싶은 가수 1위로 꼽히고 있는 박정현이 2년여 만에 단독공연인 〈조금 더 가까이〉를 개최한다. 박정현은 데뷔 10년을 훌쩍 넘긴 실력파 가수로, 최근 MBC TV 〈나는 가수다〉를 통해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다. 박정현은 이번 공연에서 관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무대를 보여준다.

일시 2011년 5월 17~22일 **장소** LG아트센터 **관람료** R석 9만9천원 S석 7만7천원 A석 5만5천원 **문의** 02-2005-0114

남진 데뷔 45주년 콘서트 '님과함께 45년'-부산 가수 남진이 데뷔 45주년을 맞아 전국투어 콘서트를 개최한다. '님과 함께', '가슴 아프게', '그대여 변치 마오', '둥지' 등의 히트곡을 들을 수 있다. 노래가 바로 자신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남진이 혼신의 힘을 다해 정열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일시 2011년 4월 30일 **장소** KBS 부산홀 **관람료** R석 9만9천원 S석 8만8천원 A석 7만7천원 B석 5만5천원 **문의** 1600-1716

남산창작센터

〈원효〉

샘컴퍼니

〈넌센세이션〉-안산

조선DB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뮤지컬 **MBC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하이테크 뮤지컬 원효'** 하이테크 뮤지컬을 표방하는 〈원효〉는 신라의 고승 원효(617~686)의 일대기를 그렸다. 파계를 불사하고 운명적 사랑을 선택하는 원효와 공주의 신분으로 원효를 사랑하는 요석, 권력과 사랑을 좇아 증오를 키운 대토의 이야기를 담았다. 정통사극이 아닌 현대적이고 글로벌한 표현기법을 사용했다. LED 영상으로 구현한 황룡사 9층 목탑 등 전통과 현대가 만난 무대디자인으로 관객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지훈, 선우, 김아선, 서지훈 등의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한다.

일시 2011년 4월 22일 ~ 6월 12일 **장소**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 **관람료** VIP석 11만원 R석 9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789-4883

'넌센세이션'-안산 웃기는 수녀들의 춤과 노래, 해프닝을 다룬 〈넌센스〉 시리즈는 지난 20년간 국내 최장 공연, 최대 관객 동원, 최고 흥행 수입이라는 기록을 가진 작품이다. 망가지는 수녀들의 이야기로 근엄한 줄만 알았던 수녀님들이 유머와 개인기, 춤과 노래로 관객들을 포복절도하게 만든다. 〈넌센세이션〉은 그 완결판으로 라스베이거스에 간 수녀들의 이야기다. 양희경, 이태원, 이혜경, 홍지민, 김현숙 등 국내 최고의 뮤지컬 여배우들이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일시 2011년 5월 28~29일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관람료** R석 4만4천원 S석 3만3천원 **문의** 080-481-4000

연극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는 2001년 초연 이후 대만, 일본을 비롯한 1백20개 도시 투어, 70만 관객 동원이라는 기록을 가진 연극이다. 가수 이기찬의 '또 한번 사랑은 가고'의 뮤직비디오로 사용되면서 많은 음악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다. 수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는 2011년 10주년 공연의 막을 올린다. 10년 전 첫 무대에서, 10년 전 관람료로 원년멤버를 비롯해 역대 출연진들이 다시 출연한다. 아름다운 춤과 몽환적인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일시 2011년 4월 19일~오픈런 **장소** 유시어터 (청담동) **관람료** 일반석 1만5천원 **문의** 02-556-5910

전시 **'어둠 속의 대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는 반대로 빛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 속의 대화〉는 1988년 이후 유럽, 아시아, 미국 등 전 세계 25개국 1백50개 도시에서 열렸다. 어둠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배려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보여준다. 전시의 모든 과정은 완전한 암흑 속 공간에서 전문 가이드 인솔하에 이뤄진다. 〈어둠 속의 대화〉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시 오픈런 **장소** 서울 서대문구 신촌 버티고타워 9층 **관람료** 성인 3만원 청소년 2만원 장애인·국가유공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313-9977

4월 셋째 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4월 3일~4월 9일

	곡명	가수
1	제발	김범수
2	직감	씨엔블루 (CNBLUE)
3	방콕시티 (Bangkok City)	오렌지 카라멜
4	아파 아이야	양파
5	Heart To Heart	4minute (포미닛)
6	반짝반짝	걸스데이 (Girl's Day)
7	메아리	김태우
8	가슴이 뛴다	케이윌 (K.Will)
9	LOVE SONG	빅뱅
10	거울아 거울아	4minute (포미닛)

공존과 상생, 탕평채 맛은 어떨까

새콤하고 고소하고 달콤하다. 또 담백하고 씹히는 맛도 있다. 아무튼 다양하다. 그런데 그 다양한 맛들이 한데 어울린다. 탕평채(蕩平菜)다. 매끈매끈한 청포묵과 사각거리는 야채들의 식감이 입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

오죽하면 탕평채라 하였을까. 얼마나 '탕평'이 필요하였으면 먹는 음식까지 만들어 탕평채라 하였을까. 조선조 영조시대, 당시의 선비들은 당파싸움에 여념이 없었다. 요즘 용어를 사용한다면 정당정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왕(王)마저 고개를 흔들 정도였다면 문제가 크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기에 일본의 역사 왜곡자들이 4색 당쟁이라고 폄하할 만큼 빌미를 주었을까. 당시 조선의 내로라하는 선비들은 죄다 동인–서인, 남인–북인으로 나뉘어 싸우고 또 대북–소북이니, 노론–소론이니, 시파–벽파니 하고 찢어져 싸웠다.

영조는 기가 찼다. 그래서 이 당파를 무너뜨리기 위해 탕평책(蕩平策)을 선포한다. 바로 그 탕평책을 논하는 자리에 탕평채가 올려졌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다양성의 시대에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울려 공존과 공생, 상생과 화합으로 가는 탕평이 아닐까. 조선조 영조시대 탕평채는 영양적으로도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과 무기질 등이 풍부하다. 그것들을 잘 섞어서 먹으면 그야말로 우주적 영양을 한입에 맛보는 것이 아닌가.

탕평채는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지는데 그중에는 4방(方)과 중앙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다. 먼저 미나리. 동쪽은 동방목(東方木)이니 푸른색의 미나리다. 다음으로 녹두로 만든 청포묵. 서쪽은 서방금(西方金)이니 흰색의 청포묵이다. 아니면 흰색 지단이 상징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쇠고기. 남쪽은 남방화(南方火)이니 붉은색의 가늘게 채 썬 쇠고기다. 다음으로 김. 북쪽은 북방수(北方水)이니 검은색의 잘 구워서 잘게 부순 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은 중방토(中方土)이니 황색 지단이다. 어디 그뿐인가. 숙주나물, 물쑥, 실고추도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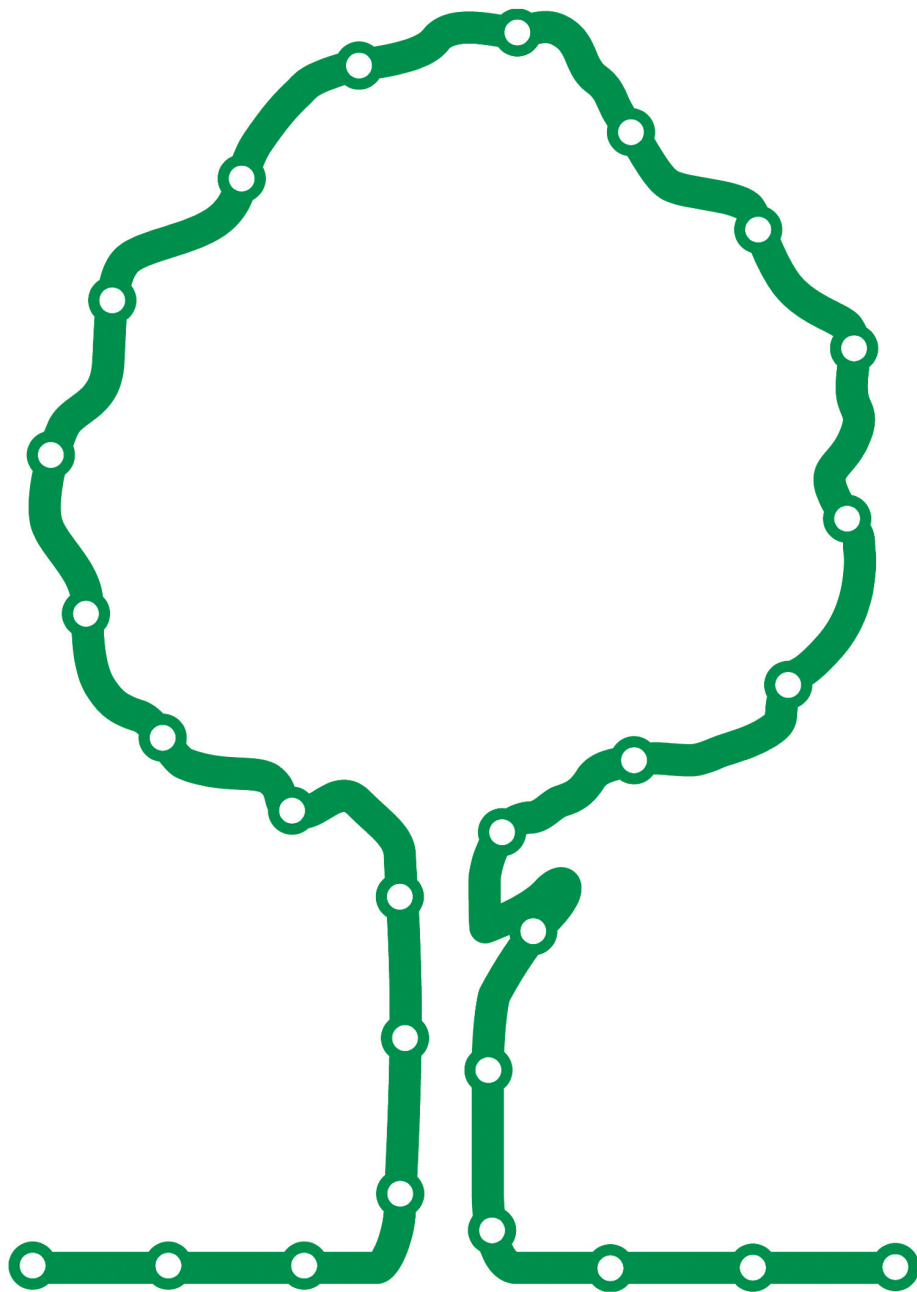
무엇보다 4색 당파를 화합시키기 위해 4색의 재료를 섞어 한 접시에 담아내는 것이 지혜롭다. 그리고 중앙까지 합하여 한 우주(宇宙)를 만들어낸다. 그러니 먹는 음식도 우주요,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우주다. 사람은 이렇게 작은 우주요, 또 사람들이 모이면 좀 더 큰 우주인 것을, 우리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순간순간 이 엄청난 진리를 잊어버리고 멋대로 행동하는 것일까.

일러스트·유현호

'탕평'이란 말은 '무편무당 왕도탕탕(無偏無黨 王道蕩蕩) 무당무편 왕도평평(無黨無偏 王道平平)〈서경(書經) 홍범조(洪範條)〉'에서 유래한 것이다. 우주의 조화와 균형을 느끼게 하는 말이다.

지금 이 한반도는 남북으로 쪼개져 있는데, 또 그 안에서도 여러 갈래로 나뉘어 파벌과 정파의 싸움이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탕평, 즉 탕평인사, 탕평예산, 탕평성장, 탕평분배가 아닐까. 이 다양성의 시대에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울려 공존과 공생, 상생과 화합으로 가는 길인 것이다.

탕평채는 영양적 면에서도 '고루고루' 갖춘 음식이다. 청포묵에는 탄수화물이, 달걀지단과 고기에는 단백질이, 김·미나리·숙주나물에는 비타민과 무기질 등이 풍부하다. 그것들을 잘 섞어서 먹으면 그야말로 우주적 영양을 한입에 맛보는 것이 아닌가. 또 이 '탕평'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임에 틀림없다. G

글·강지원(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대표)

나무 심는 지하철?

우리나라 CO_2 배출량 세계 7위.
운송수단 배기가스 중 자가용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 75%,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만으로도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납니다
이제 어딘가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세요
CO_2도 줄이고 숲도 살리고!
당신의 작은 실천에 대한민국은 더 푸르러집니다

녹색생활 실천주간

2011.4.16 – 22

지구를 위해 시작하세요!

지구를 위한 일주일은 모든 국민들이 지구를 생각하며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하고 이를 지구에 기부하는 캠페인입니다.
지구를 살리는 길, 멀리 있지 않습니다.
생활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지구를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www.greenweek.kr**에 접속

김장훈, 김현철과 함께하는 **지구의 날 기념행사**

4.22 19시 서울광장

1주일간의 실천에너지를 지구에 기부하고
녹색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언플러그드 콘서트가 열립니다.

누구나 참여하여 지구를 위한 러브송을 함께 부르세요.

* 통기타 연주 희망자는 www.greenweek.kr에서 참여 신청